

구민과 함께 만드는 서초구 성인지 통계(2021) -가족·안전 분야-

참여연구진 : 문은영·최나리

함께 참여한 구민:

김은희, 김희정, 신혜정, 안영옥, 오주환, 이은주, 이진아,
이현주, 이혜민, 이화성, 조은, 최승희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구민과 함께 만드는 서초구 성인지통계 -가족·안전 분야-

참여연구진 : 문은영·최나리

함께 참여한 구민 : 김은희, 김희정, 신혜정, 안영옥,
오주환, 이은주, 이진아, 이현주,
이혜민, 이화성, 조은, 최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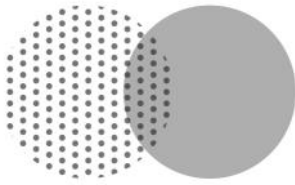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SEOCHO
WOMEN&
FAMILY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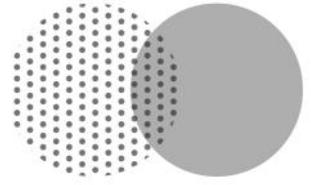
서초구·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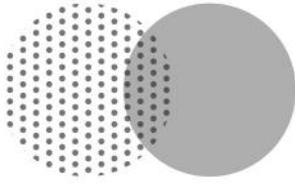
목 / 차

연구요약	9
Ⅰ 성인지 통계는?	31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33
2. 구민과 함께 만드는 통계	35
3. 조사 개요	37
Ⅱ 서초구 가족·안전분야 기존통계 현황	39
1. 서초구 가족분야 현황	41
2. 서초구 안전분야 현황	56
Ⅲ 서초구 가족분야 조사결과	63
1. 가족분야 설문 문항	65
2. 가족분야 조사결과	67
3. 분석 요약	92
Ⅳ 서초구 안전분야 조사결과	95
1. 안전분야 설문문항	97
2. 안전분야 조사결과	99
3. 분석 요약	135
• 참고문헌	137
• 〈부록〉 설문지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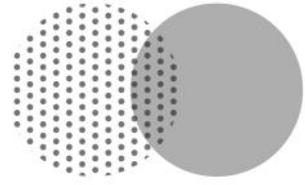
표/목/차

〈표 I-1〉 조사 개요	37
〈표 I-2〉 조사 내용	37
〈표 I-3〉 응답자의 일반 특성	38
〈표 II-1〉 서초구 성별 인구(2010, 2020.8)	42
〈표 II-2〉 서초구 인구이동(2010, 2019)	43
〈표 II-3〉 자치구별 중위연령(2020.2/4)	44
〈표 II-4〉 서초구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수(2019)	45
〈표 II-5〉 서초구 한부모 가구(2019)	46
〈표 II-6〉 성별에 따른 서초구 한부모 가구(2018)	46
〈표 II-7〉 서초구 조손 가구(2019)	46
〈표 II-8〉 성별에 따른 서초구 1인 가구 현황(2019)	47
〈표 II-9〉 서초구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분포(2019)	47
〈표 II-10〉 서초구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2019)	48
〈표 II-11〉 서초구 저출산 원인	49
〈표 II-12〉 서초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50
〈표 II-13〉 서초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20.2/4)	51
〈표 II-14〉 자치구별 독거노인 현황(2019)	52
〈표 II-15〉 서초구 합계 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	53
〈표 II-16〉 서초구 거주 외국인 현황(2018)	53
〈표 II-17〉 서울시 보육시설 (구별) 통계(2019)	54
〈표 II-1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2019)	55
〈표 II-19〉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황	56
〈표 II-20〉 생활안전도	56
〈표 II-21〉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57
〈표 II-22〉 강도,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 피해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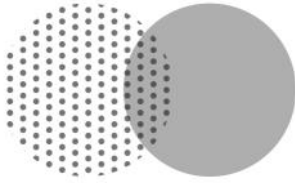
표/목/차

〈표 II-23〉 자치구별 서울도심(시내) 보행 만족도	59
〈표 II-24〉 자치구별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	60
〈표 II-25〉 자치구별 안심스카우트(2015, 2019)	61
〈표 III-1〉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67
〈표 III-2〉 자산의 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68
〈표 III-3〉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함께 결정한다	69
〈표 III-4〉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	70
〈표 III-5〉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나 계절별 의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71
〈표 III-6〉 남성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72
〈표 III-7〉 아이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엄마의 역할이다	73
〈표 III-8〉 딸의 귀가 시간은 아들에 비해 빨라야 한다	74
〈표 III-9〉 평소 자녀에게 가정 내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	75
〈표 III-10〉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76
〈표 III-11〉 남성의 육아휴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77
〈표 III-12〉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이 살림을 전담할 수 있다	78
〈표 III-13〉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은 오히려 집안일로 바쁘다	79
〈표 III-14〉 지역활동, 자원활동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80
〈표 III-15〉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81
〈표 III-16〉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2
〈표 III-17〉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과 가사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3
〈표 III-18〉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4
〈표 III-19〉 본인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85
〈표 III-20〉 가정관리와 돌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6
〈표 III-21〉 가사/육아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87



표/목/차

〈표 Ⅲ-22〉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생활의 가장 큰 변화와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88
〈표 Ⅲ-23〉 코로나에 대응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9
〈표 Ⅲ-24〉 서초구에서 가족 내 성평등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아래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90
〈표 Ⅲ-25〉 서초구에서 향후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1
〈표 Ⅳ-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99
〈표 Ⅳ-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다	100
〈표 Ⅳ-3〉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101
〈표 Ⅳ-4〉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102
〈표 Ⅳ-5〉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	103
〈표 Ⅳ-6〉 공원과 녹지조성이 잘 되어있다	104
〈표 Ⅳ-7〉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	105
〈표 Ⅳ-8〉 장마철 예방대책이나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6
〈표 Ⅳ-9〉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107
〈표 Ⅳ-10〉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	108
〈표 Ⅳ-11〉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109
〈표 Ⅳ-12〉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	110
〈표 Ⅳ-13〉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	111
〈표 Ⅳ-14〉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	112
〈표 Ⅳ-15〉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	113
〈표 Ⅳ-16〉 귀하가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을 느꼈을 때, 개선을 요구하는 창구는 무엇입니까	114



표/목/차

〈표 IV-17〉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5
〈표 IV-18〉 서초구에서 주거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16
〈표 IV-19〉 서초형 안심보행길_인지여부 및 효과성	117
〈표 IV-20〉 활주로형 횡단보도_인지여부 및 효과성	118
〈표 IV-21〉 LED 바닥신호등_인지여부 및 효과성	119
〈표 IV-22〉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0
〈표 IV-23〉 골목길 안심 CCTV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1
〈표 IV-24〉 구민 자전거 보험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2
〈표 IV-25〉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쉼터 인지 및 효과성	123
〈표 IV-26〉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플컵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4
〈표 IV-27〉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5
〈표 IV-28〉 수해복구·예방대책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6
〈표 IV-29〉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번캔버스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7
〈표 IV-30〉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_인지여부 및 효과성	128
〈표 IV-31〉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29
〈표 IV-32〉 우리 동네가 이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이 든다	130
〈표 IV-33〉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131
〈표 IV-34〉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132
〈표 IV-35〉 나는 동네 안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33
〈표 IV-36〉 나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134



I 성인지 통계는?

□ 성인지 통계

- 성인지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보여 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성인지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남녀의 불평등 상황을 이해하고 성평등을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성인지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 통계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와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함

□ 구민과 함께 만드는 통계 :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통계

- 서초구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서초구의 지역수요를 세밀히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지역의 성인지 통계자료가 요구됨.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대체로 성별 구분이 안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특징이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전국과 시·도 단위의 성인지 통계자료에서는 구 단위의 표본수가 작아 지역 특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서초구민이 지역에서 직접 체감하는 지역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성인지 통계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해 통계 생산에 참여함. 지역 구민이 지역의 가족과 안전 이슈에 대해 설문지 개발단계에서 조사단계, 분석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연 / 구 / 요 / 약

II 조사 개요

□ 조사의 목적

- 서초구 성평등사업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자료 생산
- 서초구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

□ 조사방법 및 기간

구분	내 용
조 사 대 상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남녀
표 본 크 기	1,536명(여성 70.8%, 남성 29.2%)
조 사 기 간	온라인 2021년 6월 22일 ~ 2021년 7월 2일 오프라인 2021년 6월 18일 ~ 2021년 6월 30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자료처리 및 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빈도, 교차, 기술통계 분석 실시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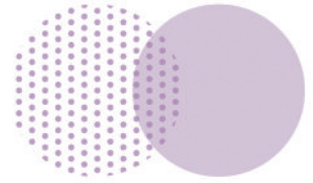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서초구 거주지역, 거주기간, 일상태, 결혼여부, 자녀유무
가족	•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안전	•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 •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등



Ⅲ 가족분야 조사 결과

□ 가족분야 설문문항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1.	4점 척도
	1) 가장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2) 가족 내 경제권에 대한 인식	
	3)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4) 가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5) 남성의 가사분담(집안살림)에 대한 인식	
	6) 남성의 가사분담(식사준비)에 대한 인식	
	7)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8) 자녀 행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9) 자녀에 대한 가족 내 역할 교육에 대한 인식	
	10) 여성의 일과 가사/육아 병행에 대한 인식	
	11)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12)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13) 여성의 휴일과 가사에 대한 인식	
	14) 지역활동, 자원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15)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2-1.	4점 척도
	1)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	
	2) 가정 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문항선택
	2-2.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2-3.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시간 기입
	2-4.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평일, 주말)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2-5.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	문항선택
	3-1. 코로나로 인한 가족생활의 어려움	
	3-2. 코로나 대응 긴급히 필요한 정책서비스	4점 척도
	3-3. 서초구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3-4.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문항선택



연 / 구 / 요 / 약

□ 가족분야 주요 조사결과

1. 서초구 구민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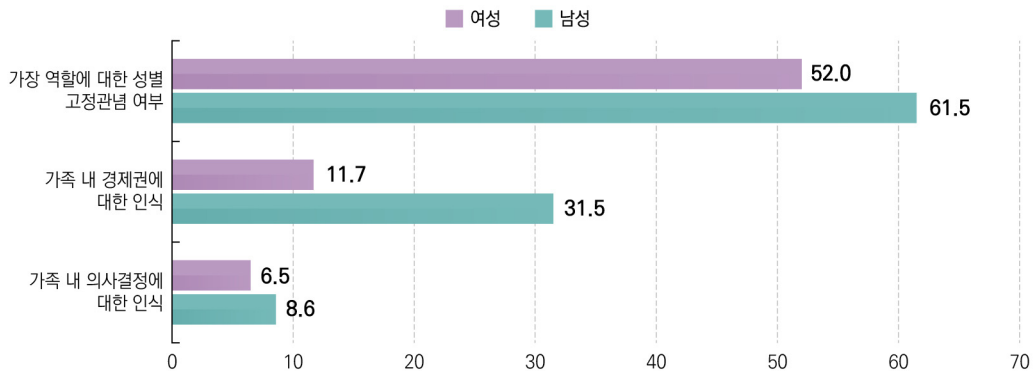
1) 가족 내 역할관련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남녀 모두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9.5%p 높게 나타남. 대체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남성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내 경제권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19.8%p)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체 문항에서 가장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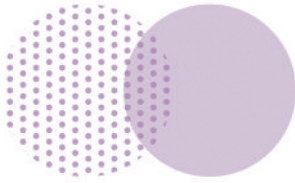
〈 가족내 역할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 〉



(단위: %)

조사 내용	특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④ 합계	⑤ 약간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③+⑥ 합계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	17.6	30.3	47.9	34.9	17.1	52.0
	남성	13.8	24.7	38.5	39.8	21.7	61.5
자신의 명의로는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여성	49.6	38.7	88.3	10.2	1.5	11.7
	남성	24.5	44.0	68.5	24.9	6.6	31.5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함께 결정한다	여성	1.7	4.8	6.5*	18.0	75.5	93.5
	남성	2.3	6.3	8.6*	25.3	66.1	91.4

*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역방향 질문으로 부정적 응답의 합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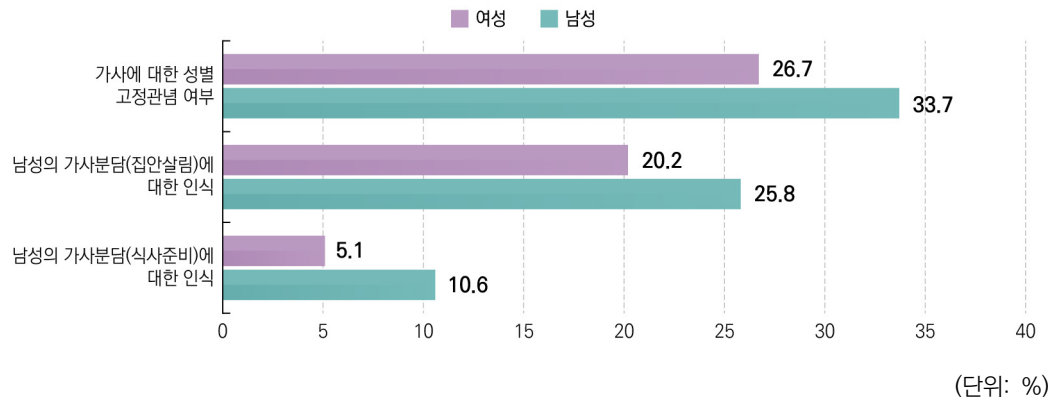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2) 가사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사'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식사 준비를 당연히 하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에 대해 여성이 26.7%, 남성이 33.7% 긍정적으로 응답함
- 반면 남성의 식사 준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타 집안일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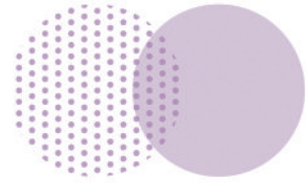
〈 가사에서의 성역할고정관념 〉



조사 내용	특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④ 합계	⑤ 약간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③+④ 합계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	여성	35.3	38.0	73.3	21.3	5.4	26.7
	남성	25.5	40.8	66.3	25.3	8.4	33.7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나 계절별 의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성	48.2	31.6	79.8	16.2	4.0	20.2
	남성	36.5	37.7	74.2	20.3	5.5	25.8
남성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여성	1.5	3.6	5.1*	24.5	70.4	94.9
	남성	2.0	8.6	10.6*	37.6	51.7	89.3

*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역방향 질문으로 부정적 응답의 합계로 제시함

연 / 구 / 요 /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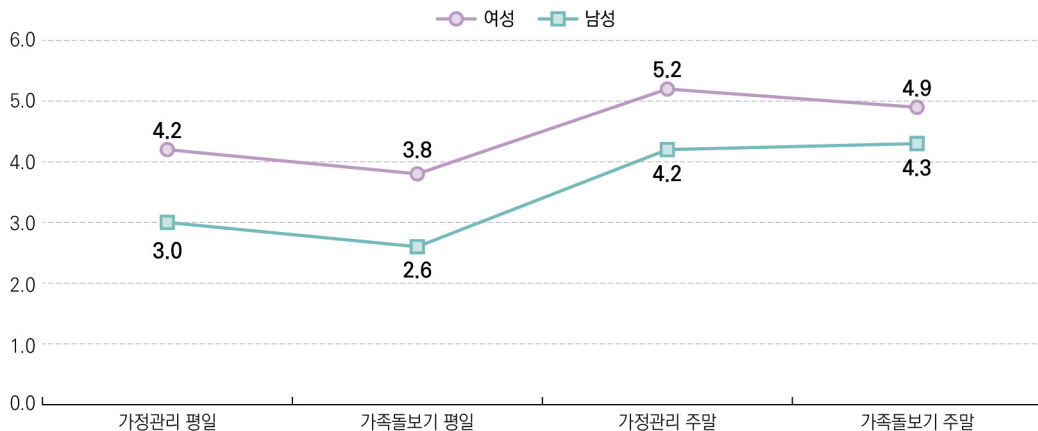
2. 서초구 구민의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1) 서초구 구민이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가정관리와 돌봄의 평균시간은 여성의 경우 평일 4.0시간, 주말 5.0시간, 남성은 평일 2.8시간, 주말 4.2시간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평일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 모두 1.2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 주말의 경우 가정관리 1시간, 가족돌보기 0.6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



(단위: 시간)

조사 내용	특 성	가정관리 평일	가족돌보기 평일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평일 평균	가정관리 주말	가족돌보기 주말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주말 평균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전 체	3.8	3.4	3.60	4.9	4.7	4.80
	여 성	4.2	3.8	4.00	5.2	4.9	5.05
	남 성	3.0	2.6	2.80	4.2	4.3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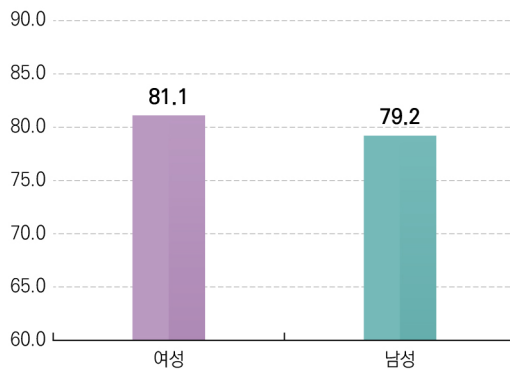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2) 삶과 가사분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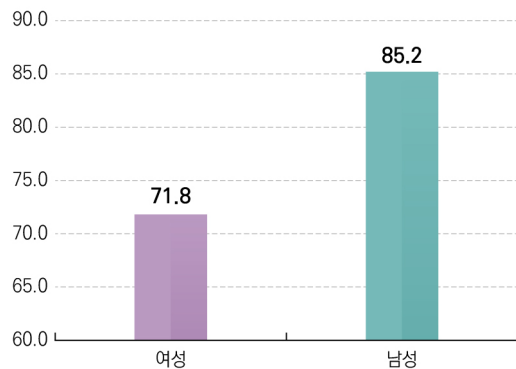
서초구 구민의 삶과 가사분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81.1%)이 남성(79.2%)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가족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여성(71.8%)이 남성(85.2%)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II-16>
- ‘가정 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4%p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II-17>

〈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 〉



〈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조사 내용	특 성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 계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여 성	2.3	16.6	71.8	9.3	81.1
	남 성	2.9	17.8	67.3	11.9	79.2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과 가사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여 성	2.7	25.4	64.4	7.4	71.8
	남 성	1.8	13.0	72.5	12.7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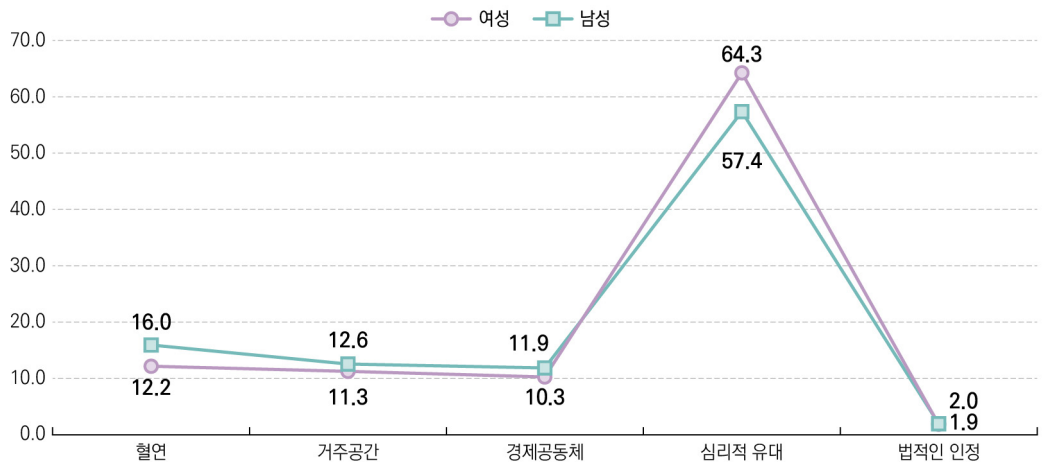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3)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가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여성과 남성 심리적 유대를 꼽았으며, 여성(64.3%)이 남성(57.4%)에 비해 높게 나타남. 즉 여성 3명 중 2명은 심리적 유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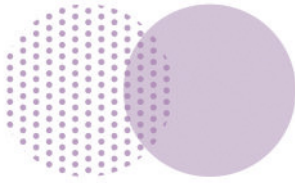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심리적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리적 유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혈연, 경제공동체, 거주공간, 법적인 인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



(단위: %)

조사 내용	특 성	혈연	거주공간	경제공동체	심리적 유대	법적인 인정
가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체	13.4	11.8	10.8	62.1	1.9
	여 성	12.2	11.3	10.3	64.3	1.9
	남 성	16.0	12.6	11.9	57.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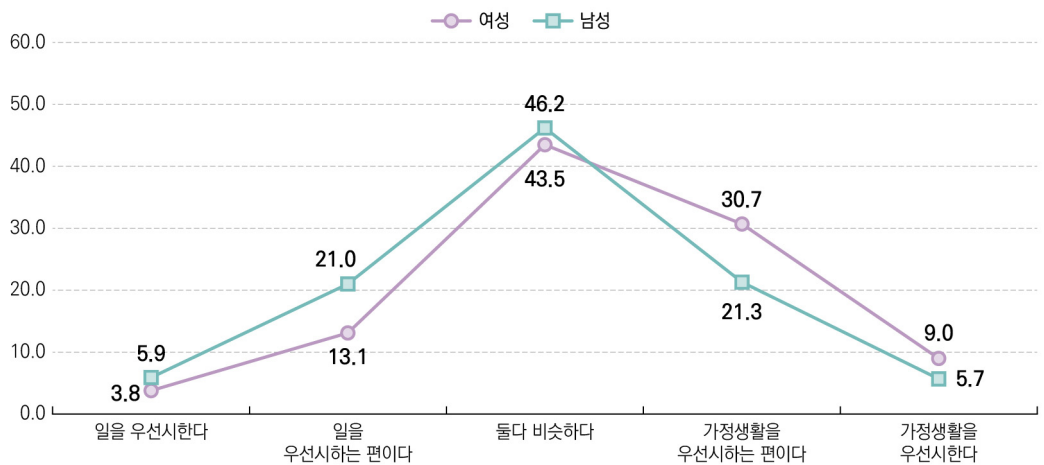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4) 서초구 구민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대해 남녀 모두 '둘 다 비슷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해 44.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남녀 모두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단위: %)

조사 내용	특 성	일을 우선시 한다	일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둘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	전 체	4.4	15.3	44.2	28.1	8.0
	여 성	3.8	13.1	43.5	30.7	9.0
	남 성	5.9	21.0	46.2	21.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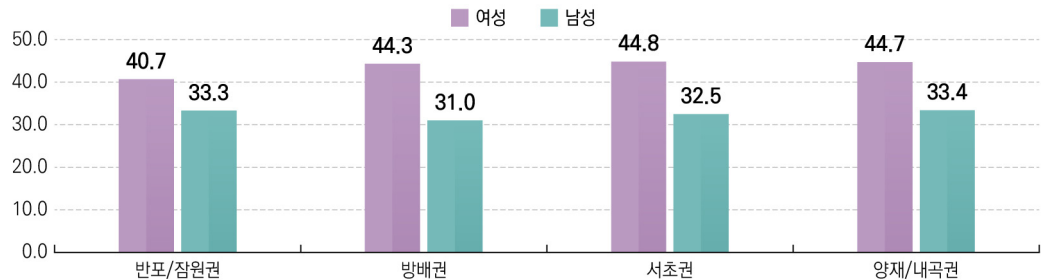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3. 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1) 서초구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포/잠원권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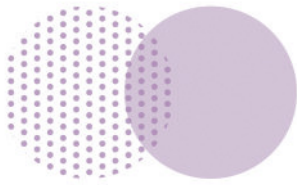


(단위: %)

조사 내용	특 성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합계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반포/잠원권	여 성	3.6	37.1	40.7	48.6	10.7
	남 성	3.9	29.4	33.3	41.2	25.5
방배권	여 성	5.0	39.3	44.3	47.1	8.6
	남 성	5.6	25.4	31.0	45.2	23.8
서초권	여 성	3.8	41.0	44.8	45.8	9.4
	남 성	0.7	31.8	32.5	44.6	23.0
양재/내곡권	여 성	4.3	40.4	44.7	40.4	14.9
	남 성	3.2	30.2	33.4	44.4	22.2

[서초구 가족내 성평등지원사업 예시]

- 서초구민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서초 아이맘 행복콜센터'(02-2155-6000) 운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매월 30만원)
- '서초프랜대디' 운영(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운영)
-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키움센터' 운영
- 시간제 보육서비스, 서초형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산모돌보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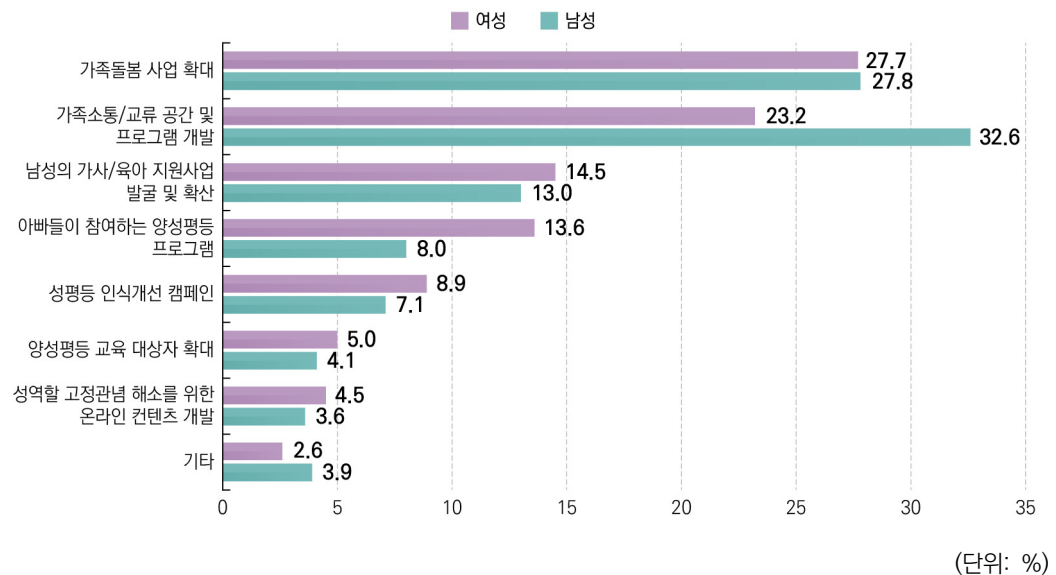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2)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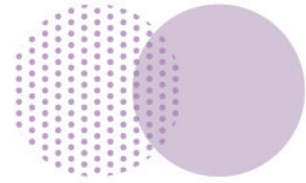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돌봄 사업과 가족소통/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 사업과 소통 프로그램에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과 인식개선 등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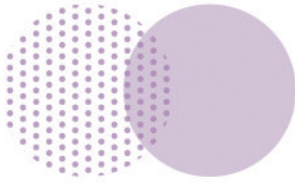
조사 내용	특 성	가족돌봄 사업 확대	가족 소통/ 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남성의 가사/ 육아 지원사업 발굴 및 확산	아빠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양성평등 교육 대상자 확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타
성별	전 체	27.8	26.0	13.9	11.8	8.4	4.8	4.2	3.0
	여 성	27.7	23.2	14.5	13.6	8.9	5.0	4.5	2.6
	남 성	27.8	32.6	13.0	8.0	7.1	4.1	3.6	3.9



IV 안전분야 조사결과

□ 안전분야 설문문항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주거환경 인식	1-1.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
	1-2.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도로	4점 척도
	1)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다.	
	2)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3)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4)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	
	시설 관리	
	5) 공원과 녹지조성이 잘 되어있다.	
	6)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	
	7) 장마철 예방대책이나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8)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	
	9)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	
	10)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11)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	
	12)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	
	13)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	
	14)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	
	개선	문항선택
	1-3.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요구 창구 1-4.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2-1.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4점 척도
	2-2.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4점 척도
	1) 서초형 안심보행길	
	2) 활주로형 횡단보도	
	3) LED 바닥신호등	
	4)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5) 골목길 안심 CCTV	
	6) 구민 자전거 보험	
	7)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헬터	



연 / 구 / 요 / 약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8)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풀컵	4점 척도
	9)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10) 수해복구·예방대책	
	11)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번캔버스	
	12)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2-3.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
	2-3-1. 필요 정책 및 개선 요구사항	자유 기재
	2-4.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식	4점 척도
	1) 주거환경 개선	
	2) 정주의식 변화	
	3) 주인의식 변화	
	4) 안전사업 참여 의향	
	5) 구정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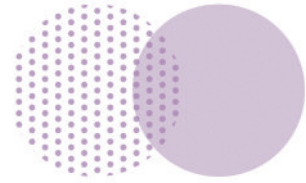
□ 안전분야 주요 조사결과

1. 주거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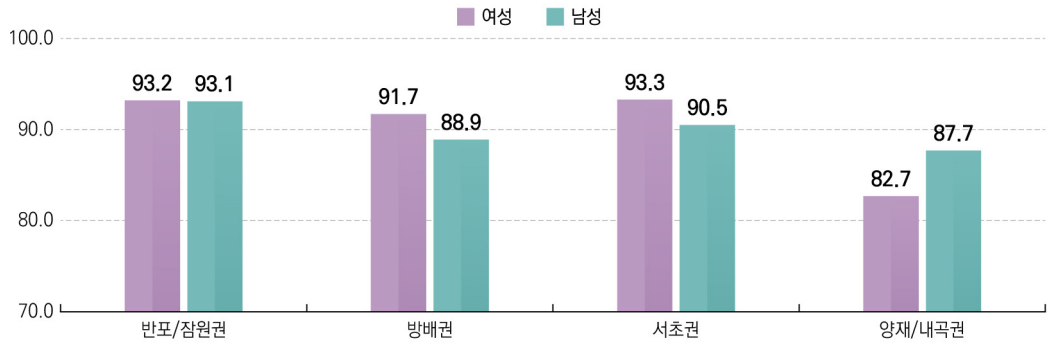
1)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거주동네의 안전환경과 관련하여, 반포/잠원권, 방배권, 서초권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포/잠원, 방배, 서초권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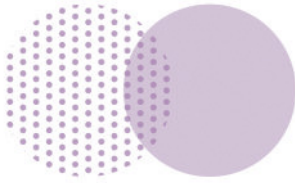


〈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구 분	성 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 계
반포/잠원권	여 성	0.7	6.1	77.4	15.8	93.2
	남 성	2.9	3.9	67.6	25.5	93.1
방배권	여 성	1.1	7.2	79.4	12.3	91.7
	남 성	0.8	10.3	74.6	14.3	88.9
서초권	여 성	0.5	6.2	80.4	12.9	93.3
	남 성	0.0	9.5	76.2	14.3	90.5
양재/내곡권	여 성	2.2	15.1	75.5	7.2	82.7
	남 성	0.0	12.3	69.2	18.5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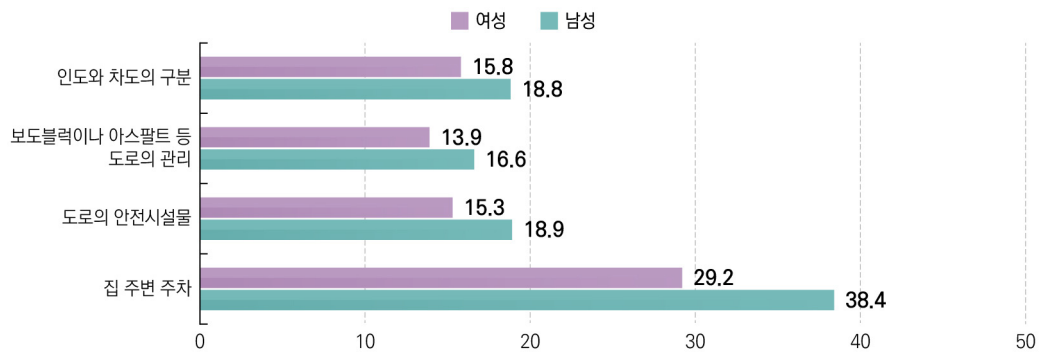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2)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주동네의 '도로' 환경에 대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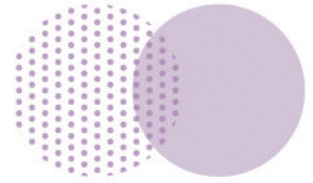
- 도로 구분과 관리, 시설물 등에서는 문항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 간 3%p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
- 집 주변 주차에서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도로 〉



(단위: %)

조사 내용	특 성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합계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다	여 성	2.0	13.8	15.8	54.4	29.8
	남 성	2.2	16.6	18.8	52.5	28.7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여 성	1.3	12.6	13.9	58.1	28.0
	남 성	1.8	14.8	16.6	53.3	30.1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여 성	1.0	14.3	15.3	57.8	26.9
	남 성	0.7	18.2	18.9	55.4	25.8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	여 성	5.8	23.4	29.2	46.4	24.3
	남 성	7.2	31.2	38.4	39.1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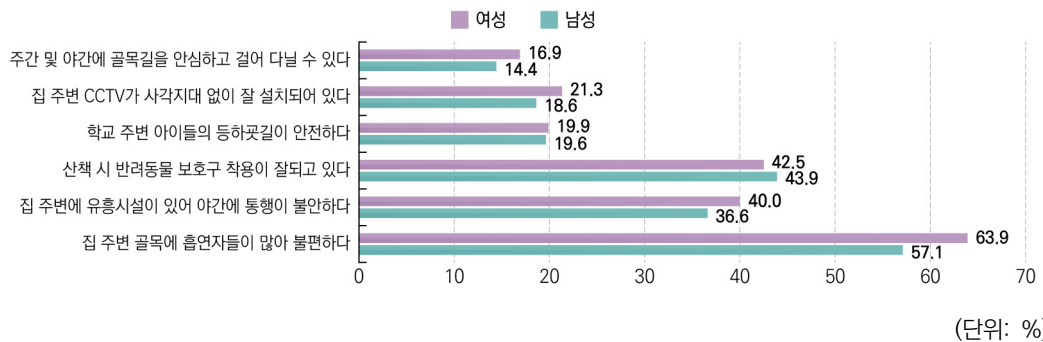


3)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안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주동네의 주거생활 '안전'에 대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골목길, CCTV, 등하굣길 등에서는 문항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골목길 흡연, 반려동물 보호구, 유흥시설 등의 순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골목길 흡연에서 성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안전 〉



조사 내용	특 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①+② 합계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③+⑤ 합계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	여 성	1.7	15.2	16.9	58.0	25.2	83.2
	남 성	1.6	12.8	14.4	55.6	30.0	85.6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여 성	2.7	18.6	21.3	57.9	20.8	78.7
	남 성	2.3	16.3	18.6	56.1	25.3	81.4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	여 성	1.9	18.0	19.9	58.1	22.0	80.1
	남 성	1.8	17.8	19.6	57.3	23.1	80.4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	여 성	7.7	34.8	42.5	44.9	12.6	57.5
	남 성	8.1	35.8	43.9	43.2	13.0	56.2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	여 성	21.6	38.3	59.9	31.9	8.1	40.0*
	남 성	23.2	40.2	63.4	28.6	8.0	36.6*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	여 성	8.4	27.7	36.1	41.9	22.0	63.9*
	남 성	9.2	33.8	43	39.4	17.7	57.1*

* 주거생활안전(불만)에 대한 역방향 질문으로 긍정적 응답의 합계로 제시함



연 / 구 / 요 / 약

2.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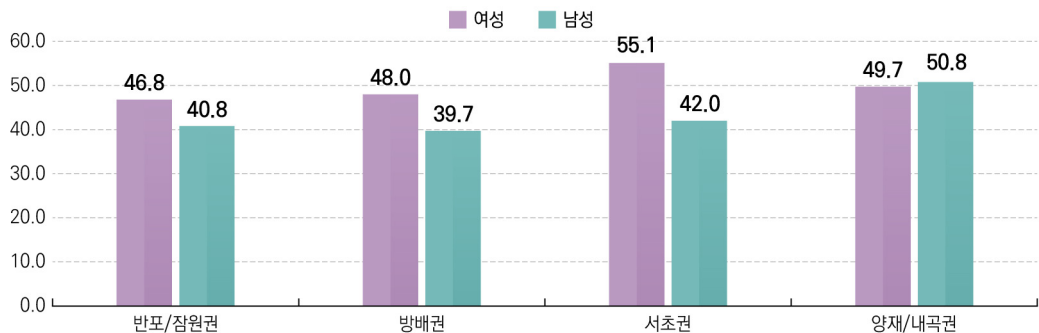
1)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초권의 인지도(전체 5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서초구 주거생활안전개선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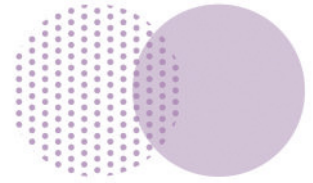
- 보·차도 분리하는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
- 바닥신호등·보행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 사고가 잦은 비신호 횡단보도 양 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 보행자와 운전자 움직임을 감지하여 서로에게 알려주는 스마트모션센서 도입
- 지역 내 후미지고 으스스한 곳을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 도시 갤러리로 개선하는 '서초 어번캔버스'
- 서초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여성 1인 가구 맞춤형 안심 서비스'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



(단위: %)

구분	특 성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①+② 합계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반포/잠원권	여 성	2.8	44.0	46.8	47.2	6.0
	남 성	4.9	35.9	40.8	42.7	16.5
방배권	여 성	3.9	44.1	48.0	47.3	4.6
	남 성	4.8	34.9	39.7	50.8	9.5
서초권	여 성	3.2	51.9	55.1	39.3	5.6
	남 성	2.7	39.3	42.0	46.0	12.0
양재/내곡권	여 성	4.3	45.4	49.7	44.0	6.4
	남 성	6.2	44.6	50.8	44.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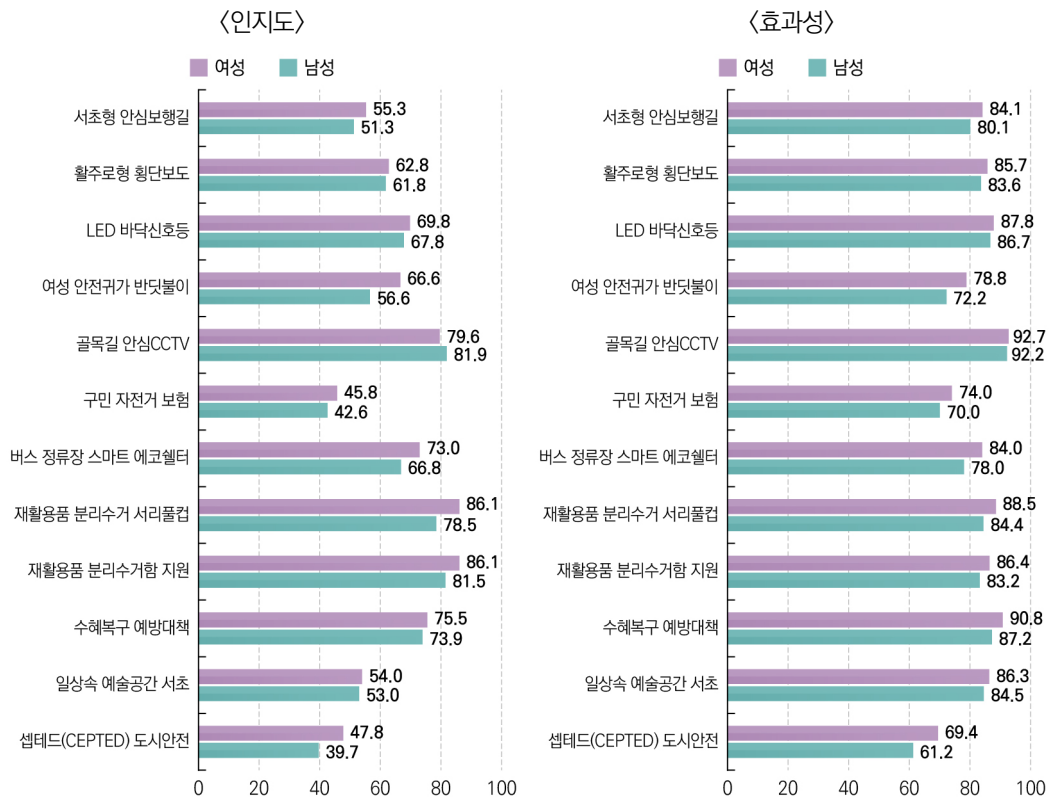


2)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효과성_개별사업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평균은 64.91%이고, 효과성의 평균은 82.16%로 나타남.
즉 서초구민 3명중 2명은 관련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10명 중 8명 정도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전거 보험, CPTED, 어번캔버스, 안심보행길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효과성 _개별사업 〉





연 / 구 / 요 / 약

(단위: %)

구 분	특 성	인 지					효 과 성				
		㉠ 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	㉢ 대체로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합계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별로 도움이 안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합계
서초형 안심보행길	여 성	8.9	35.8	45.2	10.1	55.3	1.3	14.6	57.4	26.7	84.1
	남 성	11.5	37.2	40.3	11.0	51.3	4.3	15.6	58.6	21.5	80.1
활주로형 횡단보도	여 성	6.7	30.5	40.9	21.9	62.8	1.5	12.7	50.9	34.8	85.7
	남 성	11.5	26.6	42.2	19.6	61.8	2.8	13.6	51.0	32.6	83.6
LED 바닥신호등	여 성	7.2	23.0	41.9	27.9	69.8	1.6	10.6	44.8	43.0	87.8
	남 성	7.9	24.3	40.5	27.3	67.8	1.6	11.7	47.7	39.0	86.7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여 성	7.1	26.3	39.8	26.8	66.6	3.7	17.5	47.7	31.1	78.8
	남 성	14.7	28.7	37.6	19.0	56.6	9.4	18.3	45.4	26.8	72.2
골목길 안심CCTV	여 성	2.2	18.1	52.5	27.1	79.6	0.6	6.7	45.7	47.0	92.7
	남 성	2.3	15.8	54.5	27.4	81.9	0.7	7.1	45.3	46.9	92.2
구민 자전거 보험	여 성	18.9	35.3	28.4	17.4	45.8	5.0	20.9	49.0	25.0	74.0
	남 성	25.2	32.2	28.8	13.8	42.6	8.5	21.4	44.9	25.1	70.0
버스 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	여 성	5.3	21.7	42.9	30.1	73.0	2.7	13.3	46.6	37.4	84.0
	남 성	9.5	23.8	43.9	22.9	66.8	4.8	17.2	44.4	33.6	78.0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폴컵	여 성	3.2	10.7	33.8	52.3	86.1	2.7	8.8	31.4	57.1	88.5
	남 성	6.1	15.4	39.8	38.7	78.5	4.6	11.0	39.9	44.5	84.4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여 성	3.1	10.8	40.6	45.5	86.1	1.8	11.9	42.9	43.5	86.4
	남 성	4.1	14.4	44.8	36.7	81.5	3.7	13.1	43.4	39.8	83.2
수해복구 예방대책	여 성	4.1	20.4	40.6	34.9	75.5	1.4	7.8	43.8	47.0	90.8
	남 성	5.9	20.3	44.4	29.5	73.9	2.3	10.6	48.3	38.9	87.2
일상속 예술공간 서초	여 성	7.3	38.8	37.6	16.4	54.0	1.7	11.9	49.2	37.1	86.3
	남 성	12.2	34.8	36.0	17.0	53.0	3.5	12.0	50.2	34.3	84.5
셉테드(CEPTED) 도시안전	여 성	10.9	41.3	33.5	14.3	47.8	5.6	24.9	47.7	21.7	69.4
	남 성	19.4	40.9	28.2	11.5	39.7	11.1	27.7	48.5	12.7	61.2
전체 평균						64.91					82.16



연 / 구 / 요 /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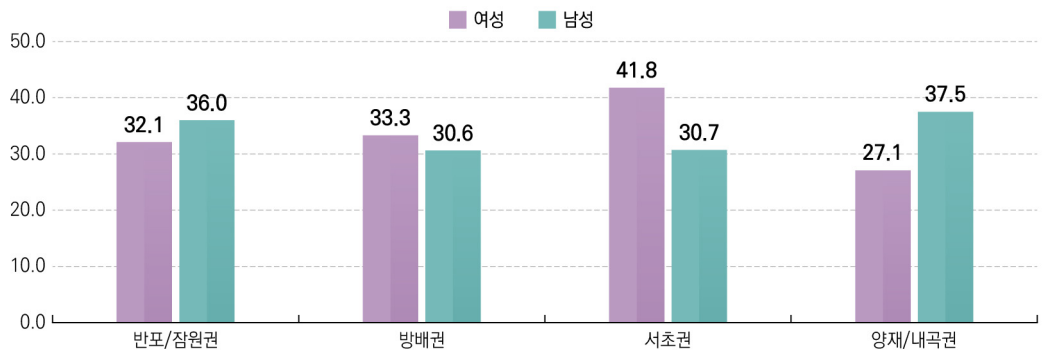
3.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1)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반포/잠원,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방배, 서초권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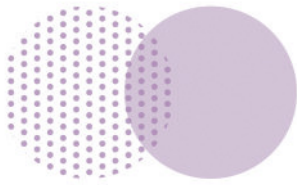
○ 서초권의 만족도(전체 38.9%)가 가장 높게 나타남. 서초권과 양재/내곡권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거주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구 분	특 성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 계
반포/잠원권	여 성	19.4	48.4	21.9	10.2	32.1
	남 성	25.0	39.0	28.0	8.0	36.0
방배권	여 성	18.3	48.4	22.9	10.4	33.3
	남 성	26.6	42.7	25.0	5.6	30.6
서초권	여 성	13.7	44.5	32.7	9.1	41.8
	남 성	22.7	46.7	24.0	6.7	30.7
양재/내곡권	여 성	26.4	46.4	22.1	5.0	27.1
	남 성	21.9	40.6	26.6	10.9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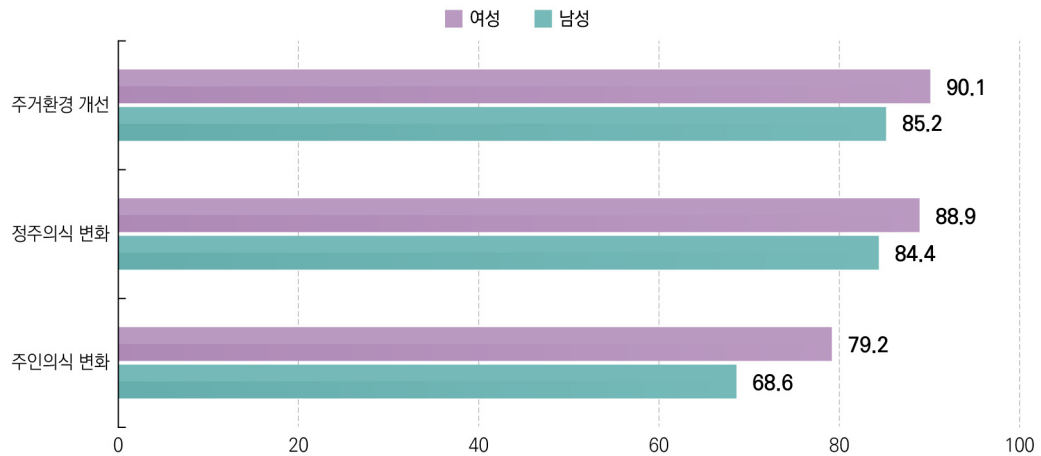
연 / 구 / 요 / 약

2)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거환경과 정주, 주인의식'의 긍정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포/잠원권의 긍정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참여에 대한 인식(1~3) 〉



(단위: %, 명)

조사 내용	특 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합 계
우리동네가 이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여 성	0.7	9.2	66.1	24.0	90.1
	남 성	0.9	13.9	64.2	21.0	85.2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에서 오래살고 싶다	여 성	0.6	10.6	51.7	37.2	88.9
	남 성	1.3	14.3	53.1	31.3	84.4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 성	1.1	19.8	51.8	27.4	79.2
	남 성	2.9	28.4	46.5	22.1	68.6



성인지 통계는?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2. 구민과 함께 만드는 통계
3. 조사개요

I

성인지 통계는?

1

성인지 통계 작성 근거

1) 성인지 통계는?

- ‘성인지통계’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구분된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차이를 통계로 제시함
 - 협의로는 개별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를 말하며, 광의로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임(여성가족부, 2018, 「성인지통계생산 및 활용안내서」)
- 즉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알기쉬운 성인지통계」)

2)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이유

-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
- 남녀의 불평등 상황을 이해하고 성평등을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격차를 나타냄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 점검
- 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정책의 시행 및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과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

3) 성인지통계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③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통계청, 여성가족부)

-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방법, 대상, 문항, 결과 등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안 제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와,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민과 함께 만드는 통계

1)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통계 제시

- 서초구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서초구의 지역수요를 세밀히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지역의 성인지 통계자료가 요구됨
-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대체로 성별구분이 안되어있어 성별에 따른 특징이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전국과 시·도 단위의 성인지 통계자료에서는 구 단위의 표본수가 작아 지역특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통계조사

- 구민이 지역에서 직접 체감하는 지역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성인지 통계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통해 통계생산에 참여함

- 지역 구민이 지역의 가족과 안전 이슈에 대해 설문지 개발단계에서 조사단계, 분석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3) 추진 내용과 추진 주체

- 단계별 세부 추진 사항과 추진 주체

단 계	주요 추진 내용	추진 주체
[1단계] 계획 및 설계	업무협약 및 시행계획서 작성 기존자료 검토, 분야별 이슈 및 현안사항 파악	- 양성평등활동센터 - 서초구 - 연구진
[2단계] 설문지 개발	설문지 설계 & 항목 개발 : 교육, 워크숍, zoom회의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을 통해 설문문항 체계화	- 서초구민 - 연구진 - 양성평등활동센터
[3단계] 설문지 조사	조사를 위한 교육, 조사실시(온/오프라인 병행) 구와 기관협조를 통해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서초구민 - 양성평등활동센터 - 연구진 - 서초구
[4단계] 설문지 분석	설문지 코딩, 빈도 분석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 연구진, 서초구민 - 양성평등활동센터

3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서초구 성평등사업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자료 생산
- 서초구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

(2) 조사방법 및 기간

〈표 I-1〉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 사 대 상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남녀
표 본 크 기	1,536명(여성 70.8%, 남성 29.2%)
조 사 기 간	온라인 2021년 6월 22일 ~ 2021년 7월 2일 오프라인 2021년 6월 18일 ~ 2021년 6월 30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자료처리 및 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빈도, 교차, 기술통계 분석 실시

(3) 조사내용

- 가족분야와 안전분야 진행

〈표 I-2〉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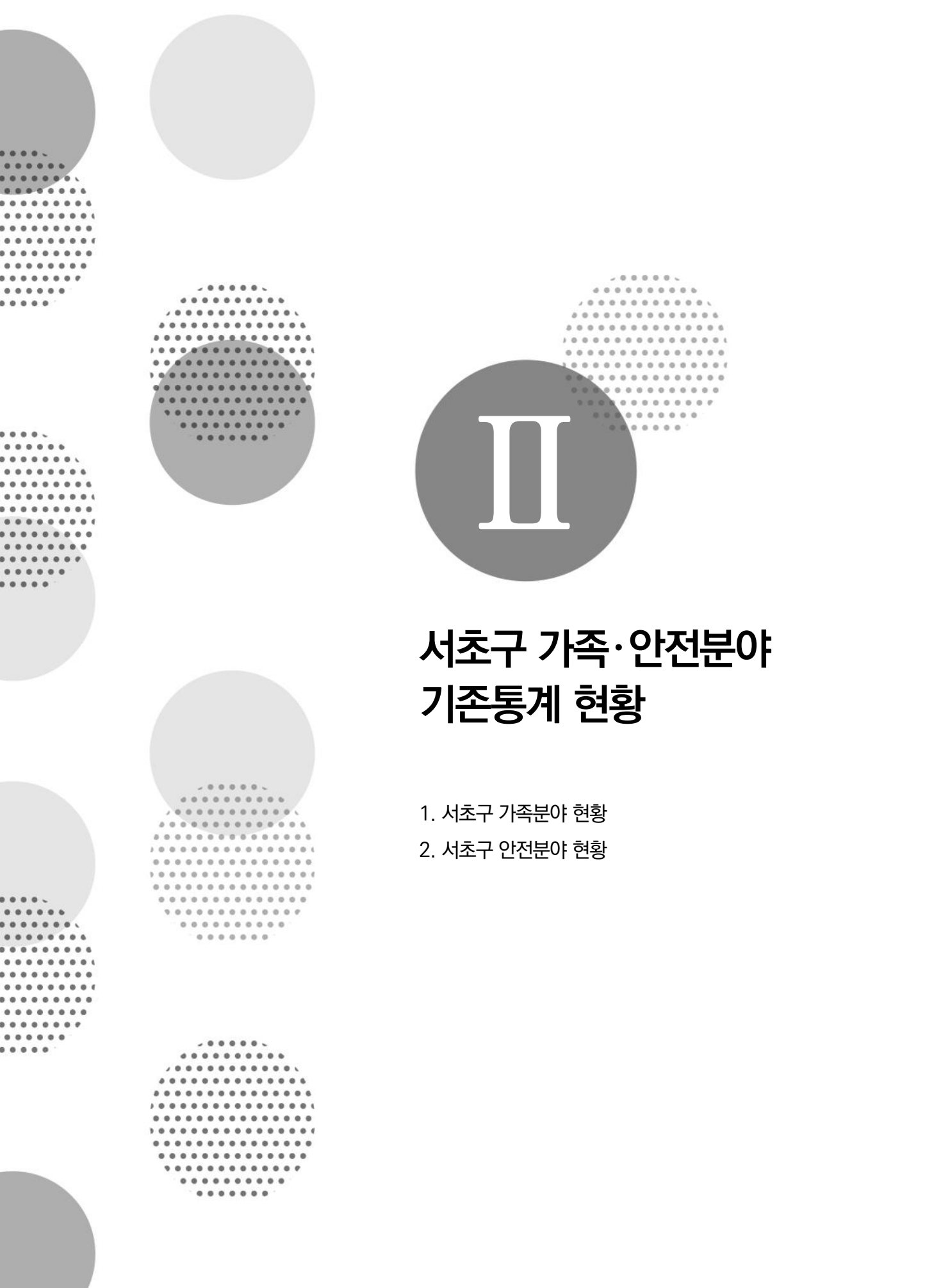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서초구 거주지역, 거주기간, 일상태, 결혼여부, 자녀유무
가족	•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안전	•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 •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I -3〉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

구분	특성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088	70.8
	남성	448	29.2
연령	20대 이하	216	14.0
	30대	433	28.1
	40대	435	28.2
	50대	264	17.1
	60대 이상	193	12.5
거주기간	2년 이하	199	15.6
	3년 이상 ~ 4년 이하	198	15.5
	5년 이상 ~ 9년 이하	239	18.7
	10년 이상 ~ 14년 이하	192	15.1
	15년 이상	447	35.1
거주여부	거주	1280	83.6
	근로	252	16.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89	25.3
	방배권	412	26.8
	서초권	529	34.4
	양재/내곡권	207	13.5
일상태	현재 일을 하고 있다	1138	74.3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93	25.7
결혼상태	비혼	495	32.2
	기혼	1003	65.2
	기타	41	2.7
자녀유무	있다	925	60.2
	없다	612	39.8



II

서초구 가족·안전분야 기존통계 현황

1. 서초구 가족분야 현황
2. 서초구 안전분야 현황

II

서초구 가족·안전분야 기존통계 현황

1

서초구 가족분야 현황¹⁾

1) 인구 및 가구 현황

(1) 인구구조 특성 및 변화

- 2020년 서초구의 전체인구는 2010년에 비해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6.2%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음. 2020년 현재 서초구 전체인구 427,237명 중 양재 1동의 인구수가 44,93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포본동이 12,011명으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인구수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51.54%였던 것에 비해 2020년 52.19%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방배동(전체)에서의 여성 비율이 53.2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본 현황자료는 서초구 발간 통계자료(『2019 서초구 사회조사보고서』 등)와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에서 발간한 2020 『서초구 성평등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함

〈표 II-1〉 서초구 성별 인구(2010, 2020.8)

(단위: 명, %)

	2010				2020.8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국	50,515,666	25,310,385	25,205,281	49.9	51,839,953	25,851,388	25,988,565	50.13
서울	10,312,545	5,111,259	5,201,286	50.44	9,708,247	4,724,585	4,983,662	49.7
서초구	434,720	210,652	224,068	51.54	427,237	204,280	222,957	52.19
서초1동	21,395	10,403	10,992	51.38	21,110	10,177	10,933	51.79
서초2동	23,491	11,585	11,906	50.68	18,795	8,906	9,889	52.62
서초3동	31,312	15,676	15,636	49.94	30,930	15,038	15,892	51.38
서초4동	31,352	15,283	19,496	62.18	31,689	15,425	16,264	51.32
잠원동	37,310	17,814	15,599	41.81	31,942	15,234	16,708	52.31
반포본동	13,592	6,442	7,150	52.6	12,011	5,687	6,324	52.65
반포1동	31,818	15,145	16,673	52.4	32,550	15,730	16,820	51.67
반포2동	21,990	10,448	11,542	52.49	16,153	7,723	8,430	52.19
반포3동	24,585	11,822	12,763	51.91	22,185	10,482	11,703	52.75
반포4동	20,872	9,998	10,874	52.1	19,473	9,204	10,269	52.73
방배본동	21,949	10,399	11,550	52.62	21,216	9,836	11,380	53.64
방배1동	17,301	8,350	8,951	51.74	17,398	8,139	9,259	53.22
방배2동	28,230	13,698	14,532	51.48	20,403	9,584	10,819	53.03
방배3동	26,529	12,982	13,547	51.06	21,792	10,502	11,290	51.81
방배4동	26,483	12,435	14,048	53.03	23,774	10,877	12,897	54.25
양재1동	26,452	12,781	13,671	51.68	44,939	21,498	23,441	52.16
양재2동	23,696	12,009	11,687	49.32	22,560	11,337	11,223	49.75
내곡동	6,363	3,382	2,981	46.85	18,317	8,901	9,416	51.41

주: 전체는 '거주자', '외국인'은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년도)

- 한편, 서초구 인구이동의 경우 2010년에는 서울시와 마치가지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의 경우 서울시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았지만 서초구는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 서초구 인구이동(2010, 2019)

(단위: %)

		총이동		시도내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전입	전출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0	전국	4,943,706	4,943,706	1,581,024	1,480,333	1,480,333	1,882,349	1,882,349	0
	서울시	1,058,340	1,102,053	258,283	409,773	409,773	390,284	390,284	-43,713
	서초구	46,695	46,751	8,900	20,192	19,048	17,603	18,803	-56
2019	전국	4,733,922	4,733,922	1,513,679	1,378,963	1,378,963	2,662,293	2,662,293	0
	서울시	974,176	970,308	227,306	363,149	363,149	383,721	379,853	3,868
	서초구	40,583	41,783	7,927	16,678	18,373	15,978	15,483	-1,200

주: 순이동=전입자 수-전출자 수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년도)

- 서초구의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 중위연령이 43세인 것에 비해 서초구는 41.6세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서울시 평균 43.7세인 것에 비해 서초구는 42세로 남녀 모두 중위연령이 낮게 나타남

〈표 II-3〉 자치구별 중위연령(2020.2/4)

(단위: 세)

	전체	남성	여성
서울	43.0	42.2	43.7
서초구	41.6	41.2	42.0
종로구	44.8	44.5	45.1
중구	44.6	44.1	45.1
용산구	43.2	42.3	44.1
성동구	42.3	41.7	42.8
광진구	41.2	40.8	41.5
동대문구	43.0	42.4	43.7
중랑구	45.6	44.6	46.6
성북구	43.2	42.4	44.0
강북구	47.1	45.8	48.4
도봉구	46.7	45.4	47.9
노원구	44.3	42.6	45.6
은평구	44.7	43.6	45.6
서대문구	42.9	42.2	43.6
마포구	40.5	40.4	40.6
양천구	43.4	42.4	44.2
강서구	41.9	41.1	42.7
구로구	44.2	43.5	44.8
금천구	45.4	44.3	46.5
영등포구	42.8	42.4	43.1
동작구	42.0	41.0	43.0
관악구	39.8	39.1	40.8
강남구	41.5	41.0	41.8
송파구	41.5	41.0	41.9
강동구	42.9	42.1	43.8

주: '중위연령' 연령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중위연령이 된다. 인구의 고령화를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

자료: 서울시(2020) 「열린데이터광장」.

(2) 가족 및 가구구조 특성 및 변화

- 2019년 기준 서초구의 세대당 인구수는 2.5명으로 전국 평균 2.4명, 서울시 평균 2.3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가구 빈도가 높은 것은 2세대 가구로 전국 평균 (45.27%)이나 서울시(43.90%)보다 높은 수준인 48.77%로 나타남. 2세대 가구 비율의 경우 서울시와 대비하여 5%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의 비율은 27.46%로 서울시 33.36%에 비해 5%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4〉 서초구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수(201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세대비율	세대당 인구수
전국	20,343,188	100	2.4
1세대 가구	3,752,000	18.44	2.0
2세대 가구	9,209,885	45.27	3.3
3세대 가구	839,928	4.13	4.6
4세대 가구	6,891	0.03	6.1
1인 가구	6,147,516	30.22	1.0
비친족 가구	386,968	1.90	2.2
서울	3,896,389	100	2.3
1세대 가구	645,266	16.56	2.0
2세대 가구	1,710,502	43.90	3.3
3세대 가구	155,420	3.99	4.6
4세대 가구	1,020	0.03	6.0
1인 가구	1,299,787	33.36	1.0
비친족 가구	84,394	2.17	2.2
서초구	155,377	100	2.5
1세대 가구	26,429	17.01	2.0
2세대 가구	75,772	48.77	3.3
3세대 가구	7,063	4.55	4.7
4세대 가구	62	0.06	6.3
1인 가구	42,667	27.46	1.0
비친족 가구	3,384	2.18	2.2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2019년 서초구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8.51%로 전국(9.9%) 및 서울시(9.8%)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 서초구 한부모 가구(2019)

(단위: 가구, %)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전국	20,343,188	2,014,609	9.90
서울시	3,831,134	381,342	9.79
서초구	155,377	13,217	8.51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한부모 가구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서초구의 경우 전국과 서울시 평균에 비해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6〉 성별에 따른 서초구 한부모 가구(2018)

(단위: 가구, %)

	한부모 가구		남성한부모 가구		여성한부모 가구	
	계	%	가구	%	가구	%
전국	20,343,188	100.0	513,358	25.5	1,501,251	74.5
서울시	3,896,389	100.0	85,686	22.5	295,656	77.5
서초구	155,377	100.0	2,943	22.3	10,274	77.7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서초구 조손 가구의 비율은 0.59%로 전국 및 서울시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7〉 서초구 조손 가구(2019)

(단위: 가구, %)

	전체 가구	조손가구	조손가구 비율
전국	20,343,188	114,211	0.56
서울시	3,896,389	20,824	0.53
서초구	155,377	911	0.59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1인 가구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1인 가구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서초구와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다만 서초구의 경우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1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시(6%)와 비교하여 더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II-8〉 성별에 따른 서초구 1인 가구 현황(2019)

(단위: 가구, %)

	1인 가구		남성		여성	
	계	%	가구	%	가구	%
전국	6,147,516	100	3,053,733	49.7	3,093,783	50.3
서울시	1,299,787	100	611,561	47.1	688,226	52.9
서초구	42,667	100	18,792	44.0	23,875	56.0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이와 관련하여 연령별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초구의 경우 30대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서울시 전체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7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서울시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 여성 고령 1인 가구에 비해 4% 이상 낮은 수준인 14.19%로 나타남

〈표 II-9〉 서초구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분포(2019)

(단위: 가구, %)

	서울시			서초구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299,787 (100)	611,561 (100)	688,226 (100)	42,667 (100)	18,792 (100)	23,875 (100)
19세 이하	0.99	0.82	1.13	1.22	1.21	1.23
20-29세	25.64	24.18	26.94	21.09	19.64	22.23
30-39세	22.18	26.31	18.52	28.78	33.07	25.40
40-49세	13.53	16.47	10.92	16.90	19.67	14.72
50-59세	12.54	14.89	10.44	11.55	13.09	10.35
60-69세	12.01	10.42	13.43	10.10	7.83	11.89
70세 이상	13.11	6.91	18.62	10.36	5.49	14.19

출처: 통계청 (2019). 「인구총조사」

- 서울시의 출생성비는 전체 53,673명 중 남자 27,811명(52%) 25,862명(48%)으로 나타남. 서초구의 경우, 전체 2,512명 중 남자 1,337명(53%), 여자 1,175명(47%)로 서울시 전체에 비해 남자는 0.1%p 많고, 여자는 0.1%p 적은 것으로 나타남. 서초구 첫째아의 경우, 63%, 둘째아 31%, 셋째아는 6%이며, (서울시 평균은 63%, 32%, 5%)로 서초구의 셋째아가 서울시 평균대비 1%p 높게 나타남

〈표 II-10〉 서초구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2019)

지역	총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53,673	27,811	25,862	33,667	17,405	16,262	17,032	8,894	8,138	2,935	1,510	1,425
종로구	673	334	339	418	206	212	209	103	106	44	25	19
중구	783	426	357	513	276	237	228	123	105	42	27	15
용산구	1,314	684	630	884	459	425	348	185	163	77	39	38
성동구	2,191	1,120	1,071	1,536	777	759	588	311	277	67	32	35
광진구	1,957	1,022	935	1,287	651	636	579	327	252	91	44	47
동대문구	1,884	943	941	1,096	551	545	662	332	330	126	60	66
중랑구	2,244	1,176	1,068	1,434	740	694	680	364	316	129	72	57
성북구	2,147	1,098	1,049	1,234	617	617	774	404	370	139	77	62
강북구	1,227	637	590	718	366	352	404	213	191	103	58	45
도봉구	1,483	786	697	875	462	413	516	272	244	92	52	40
노원구	2,604	1,349	1,255	1,590	832	758	872	445	427	140	72	68
은평구	2,407	1,253	1,154	1,421	730	691	820	429	391	165	94	71
서대문구	1,521	770	751	930	465	465	502	261	241	87	44	43
마포구	2,334	1,200	1,134	1,558	809	749	678	342	336	98	49	49
양천구	2,222	1,203	1,019	1,301	723	578	775	409	366	146	71	75
강서구	3,841	1,995	1,846	2,446	1,286	1,160	1,198	610	588	196	98	98
구로구	2,460	1,270	1,190	1,502	771	731	812	432	380	138	67	71
금천구	1,154	622	532	687	365	322	385	219	166	81	38	43
영등포구	2,633	1,338	1,295	1,717	884	833	786	390	396	130	64	66
동작구	2,227	1,174	1,053	1,435	745	690	686	366	320	103	63	40
관악구	2,245	1,155	1,090	1,442	742	700	700	366	334	99	47	52
서초구	2,512	1,337	1,175	1,594	829	765	770	431	339	148	77	71
강남구	2,749	1,432	1,317	1,797	951	846	811	404	407	138	77	61
송파구	4,424	2,277	2,147	2,749	1,423	1,326	1,437	745	692	238	109	129
강동구	2,437	1,210	1,227	1,503	745	758	812	411	401	118	54	64

자료: 서울시(2020)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10763/S/2/datasetView.do>

- 서초구 사회조사(2019)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부담(21.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18.7%),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자녀양육부담을 여성은 출산후 여성의 경력단절을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11〉 서초구 저출산 원인

(단위: %)

		응답자수	자녀 양육 부담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거비 부담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	초혼 연령 상승	일·가정 양립	기타
	전체	4,635	21.5	18.7	18.4	15.3	15.2	6.2	4.6	0.0
성별	남성	2,225	25.4	14.0	19.3	16.0	14.3	7.1	4.0	-
	여성	2,410	18.0	23.0	17.6	14.7	16.0	5.5	5.2	0.0
연령	만13~19세	352	21.1	16.4	15.2	16.0	16.3	9.4	5.4	-
	20~29세	486	23.7	15.8	18.1	14.9	16.1	7.5	3.9	-
	30~39세	933	20.9	21.5	17.7	14.8	14.6	5.2	5.3	-
	40~49세	930	22.2	21.1	16.2	16.7	14.5	5.4	3.8	-
	50~59세	976	21.3	17.2	25.0	13.4	13.5	5.8	3.8	-
	60세 이상	959	20.8	17.3	15.8	16.4	17.4	6.7	5.6	0.0
권역	반포/잠원권	1,433	25.4	15.3	17.6	14.2	17.1	6.0	4.5	-
	방배권	1,171	17.9	17.1	17.6	20.6	14.6	6.7	5.6	0.0
	서초권	1,099	21.9	24.4	23.8	11.2	11.1	4.8	2.8	-
	양재/내곡권	932	19.7	19.1	14.3	15.4	17.9	7.8	5.8	-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50

- 저출산 문제해결방안으로 영유아보육비지원(31.8%)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출산환경조성(24.1%),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2〉 서초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단위: %)

		응답자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체계적 건강관리 를 통한 출산환경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육아 후 재취업 알선	손주 돌보미 (아이 돌보미 확대)	출산 지원금 지원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전체		4,635	31.8	24.1	20.9	12.6	6.8	1.9	1.4	0.5
성별	남성	2,225	32.1	22.8	22.5	12.1	6.3	2.0	1.7	0.6
	여성	2,410	31.6	25.3	19.4	13.1	7.2	1.8	1.1	0.5
연령	만13~19세	352	39.6	22.9	16.3	13.9	4.0	-	2.2	1.0
	20~29세	486	32.6	25.7	19.8	13.2	5.2	1.3	1.4	0.9
	30~39세	933	35.1	22.7	23.9	10.6	5.6	1.4	0.4	0.3
	40~49세	930	33.4	25.5	17.3	13.9	7.5	0.8	1.6	0.1
	50~59세	976	24.2	26.9	23.6	12.6	9.0	1.8	0.8	1.0
	60세 이상	959	31.7	20.8	20.9	12.6	6.6	4.5	2.5	0.4
권역	반포/잠원권	1,433	28.9	24.8	25.9	7.8	8.7	2.3	1.3	0.3
	방배권	1,171	33.4	25.9	21.7	9.4	6.6	1.9	0.7	0.4
	서초권	1,099	31.2	21.7	15.3	20.5	7.6	1.7	1.1	0.9
	양재/내곡권	932	35.1	23.5	18.8	14.8	3.1	1.5	2.7	0.6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51

- 서초구의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 유년부양비가 14.2%인 것에 비해 서초구는 1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유년부양비 비율임. 또한 노년부양비의 경우 서울시 평균 19.3%인 것에 비해 서초구는 17.4%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 지수가 9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3〉 서초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20.2/4)

(단위: 명, %)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서울	14.2	19.3	135.8
서초구	18.5	17.4	94.0
종로구	11.6	22.4	193.8
중구	11.2	22.3	199.4
용산구	13.0	20.9	160.3
성동구	13.8	18.3	132.5
광진구	12.5	16.3	130.5
동대문구	12.6	21.4	169.6
중랑구	12.8	21.0	164.2
성북구	14.8	20.8	140.5
강북구	12.4	25.6	206.1
도봉구	13.6	23.1	170.0
노원구	15.5	19.7	127.0
은평구	14.4	22.2	153.9
서대문구	13.4	21.3	159.1
마포구	14.2	17.6	123.9
양천구	17.0	17.2	101.6
강서구	15.0	18.1	120.8
구로구	14.6	19.6	133.6
금천구	11.8	18.9	120.8
영등포구	13.1	18.5	141.7
동작구	13.4	19.7	147.2
관악구	10.0	18.2	181.4
강남구	16.2	16.8	103.6
송파구	16.3	16.4	100.6
강동구	15.2	19	125

주: 1) 유년부양비=연소인구/생산인구*100

2) 노년부양비=노령인구/생산인구*100

3) 노령화지수=노령인구/연소인구*100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성인지 통계」 (2019)

- 자치구별 여성 독거노인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여성 독거노인 비율이 67.8%인 것에 비해 서초구의 여성 독거노인 비율은 69.8%로 약 2%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14〉 자치구별 독거노인 현황(2019)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비율
서울시	343,567	110,664	232,903	67.8
서초구	9,405	2,837	6,568	69.8
종로구	9,149	3,685	5,464	59.7
중구	6,323	2,427	3,896	61.6
용산구	8,838	2,848	5,990	67.8
성동구	10,764	3,487	7,277	67.6
광진구	10,460	3,352	7,108	68.0
동대문구	15,477	5,888	9,589	62.0
중랑구	16,157	5,371	10,786	66.8
성북구	15,668	4,601	11,067	70.6
강북구	15,501	4,886	10,615	68.5
도봉구	13,407	4,249	9,158	68.3
노원구	21,249	5,953	15,296	72.0
은평구	19,974	6,349	13,625	68.2
서대문구	12,230	3,612	8,618	70.5
마포구	12,067	3,245	8,822	73.1
양천구	13,614	4,169	9,445	69.4
강서구	19,498	6,241	13,257	68.0
구로구	14,414	4,849	9,565	66.4
금천구	10,540	3,652	6,888	65.4
영등포구	14,613	5,217	9,396	64.3
동작구	14,228	4,183	10,045	70.6
관악구	18,725	6,223	12,502	66.8
강남구	12,358	3,627	8,731	70.7
송파구	15,717	5,307	10,410	66.2
강동구	13,191	4,406	8,785	66.6

자료: 서울시 (2020). 「열린데이터광장」 재분석

-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국, 서울시, 서초구를 비교했을 때, 서초구는 전국 단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서울시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모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5~44세의 출산율의 경우 전국 및 서울시 평균 대비하여 높아 고령 출산자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II-15〉 서초구 합계 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8)

(단위: 명, %)

	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8 전국	0.977	0.9	8.2	41.0	91.4	46.1	6.4	0.2
서울시	0.761	0.6	3.5	21.5	73.8	45.3	7.1	0.2
서초구	0.800	0.1	1.2	20.4	80.0	50.5	7.9	0.2

주: 1)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2)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 당 총 출산 자녀수

자료: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0.96%로 서울시 2.83%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약간의 차이지만 서울시 전체 평균의 경우 여성 외국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초구는 남성 외국인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6〉 서초구 거주 외국인 현황(2018)

(단위: 명, %)

	전체인구	외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서울시 전체	10,049,607	283,984	2.83
남성	4,910,849	136,950	2.79
여성	5,138,758	147,034	2.86
서초구	438,163	4,212	0.96
남성	209,977	2,109	1.00
여성	228,184	2,103	0.92

자료: 1)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2)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은 5,698개이며,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2,09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1,661개, 민간 어린이집이 1,512개로 나타남. 이에 비해 서초구의 경우 189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7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 어린이집(52개),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36개)으로 나타나 보육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II-17〉 서울시 보육시설 (구별) 통계(2019)

(단위: 개)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서울시	5,698	1,661	28	101	1,512	2,098	33	265
서초구	189	79	-	1	36	52	2	19
종로	77	34	2	3	8	4	-	26
중구	69	24	-	7	6	11	-	21
용산구	119	31	2	8	20	47	1	10
성동구	179	78	-	3	30	61	-	7
광진구	188	49	-	1	81	53	1	3
동대문구	215	75	-	3	52	76	-	9
종랑구	230	55	-	5	84	82	1	3
성북구	267	86	2	14	63	93	3	6
강북구	153	61	1	2	57	29	1	2
도봉구	229	63	1	2	66	94	1	2
노원구	405	91	5	-	47	254	1	7
은평구	263	71	-	9	120	59	1	3
서대문구	149	58	-	2	43	40	1	5
마포구	209	71	-	5	43	72	4	14
양천구	299	80	-	2	58	151	1	7
강서구	409	83	2	3	125	178	4	14
구로구	318	85	3	6	79	131	5	9
금천구	157	54	1	10	43	42	-	7
영등포구	248	72	2	2	56	83	-	33
동작구	219	63	3	2	62	81	1	7
관악구	251	82	2	6	73	83	1	4
강남구	201	59	-	-	56	58	1	27
송파구	395	88	1	3	122	164	2	15
강동구	260	69	1	2	82	100	1	5

- 서울시 전체 보육교사 1인당 평균 아동수는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는 5.4명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8〉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2019)

(단위: 명, %)

	보육아동수_남	보육아동수_여	보육교사수_남	보육교사수_여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서울시	111,997	105,447	206	39,525	5.5
서초구	4,613	4,388	9	1,652	5.4
종로	1,880	1,701	3	753	4.7
중구	1,808	1,704	1	751	4.7
용산구	2,354	2,256	4	834	5.5
성동구	3,588	3,417	3	1,302	5.4
광진구	3,638	3,442	14	1,313	5.3
동대문구	3,864	3,704	8	1,352	5.6
중랑구	4,893	4,532	19	1,705	5.5
성북구	4,601	4,438	6	1,703	5.3
강북구	3,500	3,323	10	1,152	5.9
도봉구	4,028	3,719	1	1,425	5.4
노원구	5,409	5,200	5	2,118	5.0
은평구	5,751	5,367	10	2,003	5.5
서대문구	3,158	3,011	4	1,097	5.6
마포구	4,115	3,966	6	1,459	5.5
양천구	5,123	4,843	14	1,728	5.7
강서구	7,680	7,095	16	2,603	5.6
구로구	5,881	5,555	7	1,924	5.9
금천구	3,334	3,090	9	1,154	5.5
영등포구	5,305	5,042	7	1,921	5.4
동작구	4,137	4,036	8	1,485	5.5
관악구	4,755	4,394	6	1,600	5.7
강남구	4,613	4,388	9	1,652	5.4
송파구	4,635	4,375	12	1,724	5.2
강동구	8,095	7,516	18	2,844	5.5

자료: 서울시 (2020). 「열린데이터광장」

2

서초구 안전분야 현황

(1) 생활안전도

-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서초구의 범죄발생률이 강남 3구 중 가장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II-19〉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송파구	5	6	6	8	309	254	2,352	1,034	3,135	2,749
강남구	10	13	14	10	600	523	3,004	1,317	3,885	3,333
서초구	5	5	5	5	470	315	1,851	838	2,395	2,020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129

- 특히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77.5%로 가장 높았음. 반면, 강도,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 피해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59.2%로 다소 낮게 나타남, 재해로 인한 피해에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과 반포/잠원권, 방배권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0〉 생활안전도

(단위: %)

		응답자 수	재해로 인한 피해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다양한 범죄 피해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전체		4,635	77.5	18.9	3.7	73.5	21.8	4.6	62.8	28.8	8.4	59.2	32.7	8.0
성별	남성	2,225	78.1	17.8	4.2	74.0	21.2	4.7	64.6	28.7	6.8	60.7	32.1	7.3
	여성	2,410	76.9	19.9	3.2	73.1	22.4	4.5	61.2	28.9	9.9	57.9	33.3	8.7
연령	만13~19세	352	64.3	29.8	5.9	68.3	24.7	7.1	55.4	32.2	12.4	62.7	25.0	11.4
	20~29세	486	77.5	20.5	2.1	75.2	19.8	5.0	62.9	27.3	9.7	63.7	30.6	5.6
	30~39세	933	75.4	22.1	2.5	73.8	21.8	4.4	62.7	28.4	8.9	58.4	32.9	8.6
	40~49세	930	77.2	19.1	3.7	69.4	26.6	4.0	62.3	28.9	8.8	59.7	30.2	10.2

		응답자 수	재해로 인한 피해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다양한 범죄 피해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50~59세	976	79.6	15.8	4.5	75.1	20.4	4.5	66.5	25.8	7.6	59.1	34.5	6.4
	60세 이상	959	82.4	13.8	3.9	76.8	18.7	4.5	62.3	31.6	6.1	56.2	36.9	6.9
권역	반포/잠원권	1,433	81.5	14.3	4.1	83.0	12.1	4.9	67.3	26.7	6.0	64.5	29.7	5.8
	방배권	1,171	81.7	15.0	3.3	71.9	25.3	2.7	64.2	26.1	9.7	58.0	30.7	11.3
	서초권	1,099	77.5	20.8	1.7	69.2	27.6	3.2	58.2	29.6	12.2	53.5	36.8	9.7
	양재/내곡권	932	65.8	28.6	5.7	66.2	25.5	8.3	59.6	34.4	6.0	59.5	35.2	5.3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130

- 전체 응답자의 62.8%가 밤늦게 걸어다닐 경우 안전하다고 인식함. 반면 상대적으로 10대와 서초권 거주자는 밤늦게 걸어다닐 경우,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음

〈표 II-21〉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단위: %)

		응답자수	① 매우 안전	② 약간 안전	③ 보통	④ 약간 위험	⑤ 매우 위험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전체		4,635	13.3	49.5	28.8	8.1	0.3	62.8	28.8	8.4
성별	남성	2,225	15.9	48.7	28.7	6.4	0.4	64.6	28.7	6.8
	여성	2,410	10.9	50.3	28.9	9.7	0.2	61.2	28.9	9.9
연령	만13~19세	352	9.6	45.8	32.2	12.0	0.4	55.4	32.2	12.4
	20~29세	486	10.4	52.5	27.3	9.7	0.0	62.9	27.3	9.7
	30~39세	933	14.0	48.7	28.4	8.7	0.2	62.7	28.4	8.9
	40~49세	930	14.7	47.6	28.9	8.7	0.1	62.3	28.9	8.8
	50~59세	976	12.5	54.0	25.8	7.6	0.1	66.5	25.8	7.6
	60세 이상	959	14.9	47.4	31.6	5.2	0.9	62.3	31.6	6.1
권역	반포/잠원권	1,433	14.1	53.2	26.7	5.3	0.7	67.3	26.7	6.0
	방배권	1,171	15.1	49.1	26.1	9.7	-	64.2	26.1	9.7
	서초권	1,099	14.2	44.1	29.6	12.1	0.1	58.2	29.6	12.2
	양재/내곡권	932	8.6	51.0	34.4	5.8	0.2	59.6	34.4	6.0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132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강도,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 피해에 안전하다고 인식함.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반포/잠원권 거주자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2〉 강도,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 피해

(단위: %)

		응답자수	① 매우 안전	② 약간 안전	③ 보통	④ 약간 위험	⑤ 매우 위험	안전함 (①+②)	보통 (③)	위험함 (④+⑤)
전체		4,635	14.6	44.6	32.7	7.8	0.2	59.2	32.7	8.0
성별	남성	2,225	17.0	43.7	32.1	7.1	0.1	60.7	32.1	7.3
	여성	2,410	12.4	45.5	33.3	8.4	0.3	57.9	33.3	8.7
연령	만13~19세	352	11.2	51.6	25.8	11.2	0.3	62.7	25.8	11.4
	20~29세	486	11.2	52.5	30.6	5.4	0.3	63.7	30.6	5.6
	30~39세	933	15.1	43.4	32.9	8.4	0.3	58.4	32.9	8.6
	40~49세	930	17.1	42.6	30.2	10.0	0.2	59.7	30.2	10.2
	50~59세	976	15.0	44.2	34.5	6.1	0.3	59.1	34.5	6.4
	60세 이상	959	14.3	41.8	36.9	6.9	0.1	56.2	36.9	6.9
권역	반포/잠원권	1,433	16.0	48.5	29.7	5.6	0.2	64.5	29.7	5.8
	방배권	1,171	18.5	39.5	30.7	11.3	-	58.0	30.7	11.3
	서초권	1,099	8.5	45.0	36.8	9.4	0.3	53.5	36.8	9.7
	양재/내곡권	932	14.8	44.7	35.2	4.8	0.5	59.5	35.2	5.3

자료: 서초구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p.133

(2) 지역사회 안전

- 서초구의 보행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여성이 보행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49.3%인 것에 비해 서초구 여성은 43.7%로 약 5%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서초구 남성의 경우 보행 만족도가 51.8%로 서울시 전체 남성 51.0%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23〉 자치구별 서울도심(시내) 보행 만족도

(단위: %)

	남성			여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서울시	9.7	39.3	51.0	10.7	40.0	49.3
서초구	12.0	36.2	51.8	10.8	45.6	43.7
종로	6.7	49.5	43.8	7.2	54.5	38.3
중구	7.4	33.0	59.6	5.7	44.1	50.2
용산구	11.6	31.3	57.1	14.1	36.6	49.4
성동구	9.9	39.9	50.2	13.5	37.9	48.7
광진구	11.8	35.2	53.0	11.9	38.9	49.2
동대문구	7.2	52.0	40.8	6.1	53.8	40.0
중랑구	11.0	35.3	53.7	8.0	37.4	54.6
성북구	9.3	41.6	49.1	7.1	44.3	48.6
강북구	10.5	45.2	44.3	13.8	42.7	43.5
도봉구	11.2	34.1	54.7	13.5	32.9	53.7
노원구	12.2	47.1	40.7	10.1	50.4	39.5
은평구	8.2	34.3	57.5	9.3	33.7	57.0
서대문구	9.2	54.8	36.0	10.3	49.3	40.5
마포구	5.4	38.8	55.8	7.8	33.1	59.1
양천구	6.0	41.3	52.7	9.6	39.8	51.5
강서구	12.4	28.4	59.3	15.9	29.7	54.5
구로구	12.5	30.1	57.4	12.7	34.3	53.0
금천구	7.8	38.1	59.3	6.8	41.1	52.1
영등포구	8.3	38.9	47.0	11.5	34.9	53.7
동작구	6.7	44.8	44.4	4.8	53.0	42.2
관악구	9.4	48.9	54.0	11.1	36.5	52.4
강남구	14.3	36.6	49.2	18.0	39.6	42.4
송파구	7.7	37.8	54.5	13.6	34.6	51.9
강동구	8.1	40.1	51.8	5.7	39.8	54.5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2019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서초구의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여성이 야간 보행환경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8.0%인 것에 비해 서초구 여성은 35.4%로 약 2.6%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서초구 남성의 경우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가 40.9%로 서울시 전체 남성 41.3%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24〉 자치구별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

(단위: %)

	남성			여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서울시	18.7	40.0	41.3	20.9	41.2	38.0
서초구	24.2	34.9	40.9	24.2	40.2	35.4
종로	27.5	46.9	25.6	34.5	38.1	27.4
중구	11.1	49.1	39.8	17.2	54.5	28.2
용산구	9.5	18.4	72.2	14.9	23.0	62.2
성동구	26.2	36.7	37.1	28.3	39.2	32.5
광진구	20.5	39.6	39.9	20.8	29.2	32.5
동대문구	29.1	40.2	30.7	29.1	43.4	27.5
중랑구	16.8	39.6	43.6	18.2	44.0	37.9
성북구	23.8	49.8	26.5	30.0	38.9	31.1
강북구	14.6	36.9	29.3	31.0	42.0	27.0
도봉구	14.6	36.9	48.5	18.7	40.3	41.0
노원구	19.9	51.2	28.9	24.4	46.4	29.2
은평구	14.4	40.5	45.2	15.6	40.8	29.2
서대문구	26.1	44.8	29.1	28.5	43.1	28.4
마포구	17.1	44.5	38.4	18.2	47.5	34.3
양천구	14.0	52.7	33.3	15.7	53.5	30.7
강서구	16.4	32.3	51.3	20.6	30.6	48.8
구로구	14.8	37.6	47.6	18.7	35.2	46.1
금천구	15.4	37.8	46.8	22.3	39.3	38.4
영등포구	18.6	43.1	38.3	17.6	43.2	39.2
동작구	14.7	42.2	43.0	12.6	44.3	43.0
관악구	20.2	35.5	44.3	24.1	36.7	39.3
강남구	22.4	38.6	50.2	16.0	47.1	37.0
송파구	20.4	33.7	45.9	17.9	42.2	39.9
강동구	13.4	37.6	49.0	13.5	37.9	48.6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2019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안심스카우트 인원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26명(2019)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스카우트 인원(평균 인원 18.1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실적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이 12,296건인 것에 비해 43,556건으로 나타나 3만건 이상 많았음. 이를 통해 안심스카우트 사업이 서초구의 대표적인 안전사업임을 알 수 있음

〈표 II-25〉 자치구별 안심스카우트(2015, 2019)

(단위: %)

	2015		2019	
	이용실적	스카우트 인원	이용실적	스카우트 인원
서울시	233,290	420	307,399	452
서초구	22,185	25	43,556	26
종로	8,861	19	10,097	11
중구	2,935	11	12,658	17
용산구	4,994	11	9,238	13
성동구	8,043	15	17,510	23
광진구	6,533	13	6,099	11
동대문구	5,588	11	20,776	21
중랑구	8,448	13	14,696	17
성북구	6,789	15	16,836	23
강북구	10,507	19	18,282	25
도봉구	3,467	15	12,602	15
노원구	5,766	13	10,838	17
은평구	6,789	19	10,145	21
서대문구	7,227	15	11,164	17
마포구	1,202	13	10,494	11
양천구	5,012	13	8,393	13
강서구	3,554	11	9,145	13
구로구	13,580	26	15,233	21
금천구	18,323	26	17,946	25
영등포구	16,315	26	10,700	17
동작구	8,350	19	18,766	25
관악구	18,463	25	15,730	23
강남구	3,341	13	6,306	11
송파구	24,221	19	9,309	15
강동구	12,797	15	14,436	21

자료: 서울시 (2020). 「열린데이터광장」



III

서초구 가족분야 조사결과

1. 가족분야 설문문항
2. 가족분야 조사결과
3. 분석 요약

III

서초구 가족분야 조사결과

1

가족분야 설문 문항

1) 가족분야 설문주제

-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2) 가족분야 설문문항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 (부부)	1-1.	4점 척도
		1) 가장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2) 가족 내 경제권에 대한 인식	
	가사	3)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4) 가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5) 남성의 가사분담(집안살림)에 대한 인식	
		6) 남성의 가사분담(식사준비)에 대한 인식	
	육아	7)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8) 자녀 행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9) 자녀에 대한 가족 내 역할 교육에 대한 인식	
	일과 가정	10) 여성의 일과 가사/육아 병행에 대한 인식	
		11)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12)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가/ 사회활동	13) 여성의 휴일과 가사에 대한 인식	
		14) 지역활동, 자원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15)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2-1.	4점 척도
		1)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	
		2) 가정 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문항선택
		2-2.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2-3.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시간 기입
		2-4.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평일, 주말)	문항선택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2-5.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	문항선택
		3-1. 코로나로 인한 가족생활의 어려움	
		3-2. 코로나 대응 긴급히 필요한 정책서비스	4점 척도
		3-3. 서초구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3-4.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문항선택

2

가족분야 조사결과

1)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 가장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5%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52%로 나타났고, 남성은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비혼(36.8%)보다는 기혼자(63.5%)가, 자녀가 없는 경우(38.9%) 보다는 있는 경우(65.4%)가 높게 나타남.

〈표 Ⅲ-1〉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명)
전체		16.5	28.7	36.4	18.5	54.9	1,521
성별	여성	17.6	30.3	34.9	17.1	52.0	1,079
	남성	13.8	24.7	39.8	21.7	61.5	442
연령	20대 이하	32.6	36.7	23.7	7.0	30.7	215
	30대	19.0	37.0	33.3	10.6	43.9	432
	40대	12.2	25.9	43.2	18.7	61.9	433
	50대	10.0	23.8	39.8	26.4	66.2	261
	60대 이상	11.4	12.4	36.8	39.5	76.3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6.8	26.9	38.3	17.9	56.2	368
	방배권	16.9	25.9	36.4	20.8	57.2	409
	서초권	17.8	29.3	36.1	16.8	52.9	523
	양재/내곡권	11.8	36.3	31.9	20.1	52.0	204
결혼여부	비혼	26.4	36.8	28.3	8.5	36.8	492
	기혼	11.7	24.9	40.2	23.3	63.5	993
	기타	10.3	25.6	41.0	23.1	64.1	39
자녀유무	있다	11.1	23.5	41.0	24.4	65.4	914
	없다	24.5	36.6	29.2	9.7	38.9	609

▷ 가족 내 경제권에 대한 인식

‘자산의 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7.6%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11.7%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3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전체적으로 부정적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9.8%, 30대 13.2%, 40대 19.3%, 50대 21.5%, 60대 27.3%), 기혼의 경우(20.2%), 자녀가 있는 경우(20.6%) 자산의 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2〉 자산의 명의는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명)
전체		42.1	40.2	14.7	2.9	17.6	1,531
성별	여성	49.6	38.7	10.2	1.5	11.7	1,078
	남성	24.5	44.0	24.9	6.6	31.5	441
연령	20대 이하	58.4	31.8	7.9	1.9	9.8	214
	30대	46.7	40.2	11.1	2.1	13.2	433
	40대	42.2	38.5	16.8	2.5	19.3	434
	50대	32.3	46.2	17.7	3.8	21.5	260
	60대 이상	27.3	45.4	21.3	6.0	27.3	1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6.2	37.7	13.0	3.1	16.1	385
	방배권	37.9	39.4	20.3	2.4	22.7	409
	서초권	44.1	41.0	11.9	3.1	15.0	522
	양재/내곡권	38.2	44.1	14.2	3.4	17.6	204
결혼여부	비혼	53.5	33.7	11.0	1.8	12.8	493
	기혼	36.7	43.0	16.8	3.4	20.2	992
	기타	44.7	44.7	7.9	2.6	10.5	38
자녀유무	있다	36.3	43.0	17.0	3.6	20.6	911
	없다	51.2	35.6	11.3	1.8	13.1	609

▷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함께 결정한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7.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6.5%로 나타났고, 남성은 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응답이 2.1%p 더 높게 나타남.

〈표 III-3〉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함께 결정한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9	5.4	20.2	72.6	7.3	1,531
성별	여성	1.7	4.8	18.0	75.5	6.5	1,076
	남성	2.3	6.3	25.3	66.1	8.6	443
연령	20대 이하	2.8	6.5	20.0	70.7	9.3	215
	30대	1.2	7.4	20.8	70.7	8.6	433
	40대	1.2	3.0	18.9	76.9	4.2	433
	50대	2.7	6.5	18.1	72.7	9.2	260
	60대 이상	3.3	2.7	25.7	68.3	6.0	1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1	4.1	21.2	72.5	6.2	386
	방배권	2.4	6.8	22.5	68.2	9.2	409
	서초권	1.7	6.3	17.3	74.7	8.0	521
	양재/내곡권	1.0	2.0	20.6	76.5	3.0	204
결혼여부	비혼	2.0	7.1	20.9	70.0	9.1	494
	기혼	1.9	4.4	20.0	73.7	6.3	991
	기타	0.0	7.9	18.4	73.7	7.9	38
자녀유무	있다	2.0	4.3	19.8	74.0	6.3	911
	없다	1.8	7.1	20.9	70.3	8.9	609

▷ 가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9.0%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26.7%로 나타났고, 남성은 3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가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7.0%p 높게 나타남.

〈표 Ⅲ-4〉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32.4	38.7	22.7	6.3	29	1,526
성별	여성	35.3	38.0	21.3	5.4	26.7	1,075
	남성	25.5	40.8	25.3	8.4	33.7	439
연령	20대 이하	51.2	36.6	9.9	2.3	12.2	213
	30대	39.8	41.0	15.7	3.5	19.2	432
	40대	29.6	40.0	24.8	5.6	30.4	432
	50대	19.2	39.1	33.7	8.0	41.7	261
	60대 이상	19.3	30.9	32.6	17.1	49.7	18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9.6	40.8	23.1	6.5	29.6	385
	방배권	30.7	36.6	25.6	7.1	32.7	407
	서초권	33.6	40.9	20.7	4.8	25.5	518
	양재/내곡권	37.1	32.7	22.0	8.3	30.3	205
결혼여부	비혼	46.7	38.6	11.8	2.8	14.6	492
	기혼	25.3	38.7	28.0	8.0	36.0	988
	기타	34.2	44.7	18.4	2.6	21	38
자녀유무	있다	24.4	38.7	28.3	8.6	36.9	908
	없다	44.5	38.6	14.0	3.0	17	609

▷ 남성의 가사분담(집안살림)에 대한 인식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나 계절별 의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1.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2%로 나타났고, 남성은 2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18.1%, 30대 19.9%, 40대 20%, 50대 23.4%, 60대 31.3%), 기혼의 경우(23.9%), 자녀가 있는 경우(24.1%) 자산의 명의를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5〉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나 계절별 의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44.5	33.6	17.5	4.4	21.9	1,527
성별	여성	48.2	31.6	16.2	4.0	20.2	1,077
	남성	36.5	37.7	20.3	5.5	25.8	438
연령	20대 이하	58.1	23.7	15.3	2.8	18.1	215
	30대	46.9	33.2	15.3	4.6	19.9	431
	40대	43.2	36.9	15.1	4.9	20.0	431
	50대	39.1	37.5	19.2	4.2	23.4	261
	60대 이상	35.2	33.5	26.4	4.9	31.3	182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6.1	35.1	13.6	5.2	18.8	382
	방배권	38.7	35.0	21.3	4.9	26.2	408
	서초권	46.9	32.0	17.4	3.6	21.0	522
	양재/내곡권	47.1	32.8	16.2	3.9	20.1	204
결혼여부	비혼	54.3	27.8	13.8	4.1	17.9	492
	기혼	40.4	35.7	19.2	4.7	23.9	988
	기타	36.8	47.4	15.8	0.0	15.8	38
자녀유무	있다	40.6	35.2	19.3	4.8	24.1	908
	없다	50.8	30.6	15.0	3.6	18.6	608

▷ 남성의 가사분담(식사준비)에 대한 인식

‘남성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6.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5.1%로 나타났고, 남성은 1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응답이 5.5%p 더 높게 나타남.

〈표 Ⅲ-6〉 남성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7	5.1	28.6	64.6	6.8	1,524
성별	여성	1.5	3.6	24.5	70.4	5.1	1,071
	남성	2.0	8.6	37.6	51.7	10.6	441
연령	20대 이하	1.9	4.2	19.5	74.4	6.1	215
	30대	2.1	5.1	24.9	67.9	7.2	433
	40대	1.2	3.5	27.7	67.7	4.7	430
	50대	0.4	6.2	34.2	59.2	6.6	260
	60대 이상	3.9	8.3	42.2	45.6	12.2	18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5	3.7	29.8	66.0	4.2	379
	방배권	2.4	7.8	30.3	59.4	10.2	409
	서초권	2.1	4.6	27.4	65.8	6.7	521
	양재/내곡권	1.0	3.9	25.5	69.6	4.9	204
결혼여부	비혼	2.2	4.0	23.5	70.2	6.2	494
	기혼	1.5	5.8	30.9	61.8	7.3	985
	기타	0.0	2.6	23.7	73.7	2.6	38
자녀유무	있다	1.5	5.7	30.7	62.0	7.2	906
	없다	1.8	4.3	25.1	68.8	6.1	609

▷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아이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엄마의 역할이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1.1%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2%로 나타났고, 남성은 2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2.8%p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일 경우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남.

〈표 III-7〉 아이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엄마의 역할이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48.0	30.9	16.5	4.6	21.1	1,526
성별	여성	50.7	29.1	15.8	4.4	20.2	1,076
	남성	41.8	35.4	17.8	5.0	22.8	483
연령	20대 이하	60.9	28.4	8.8	1.9	10.7	215
	30대	51.5	32.6	13.6	2.3	15.9	433
	40대	46.2	29.9	17.9	6.0	23.9	431
	50대	40.4	32.7	22.7	4.2	26.9	260
	60대 이상	40.0	30.0	21.1	8.9	30.0	18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8.4	31.7	15.4	4.5	19.9	382
	방배권	45.7	28.9	21.0	4.4	25.4	409
	서초권	48.2	33.3	14.1	4.4	18.5	519
	양재/내곡권	50.7	27.3	16.6	5.4	22.0	205
결혼여부	비혼	57.9	30.0	9.9	2.2	12.1	494
	기혼	43.5	30.8	19.9	5.9	25.8	985
	기타	39.5	47.4	10.5	2.6	13.1	38
자녀유무	있다	43.6	29.9	20.1	6.5	26.6	907
	없다	54.8	32.4	11.2	1.6	12.8	608

▷ 자녀 행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딸의 귀가 시간은 아들에 비해 빨라야 한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4.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41.8%로 나타났고, 남성은 5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9.8%p 높게 나타남.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딸의 귀가 시간은 아들에 비해 빨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27.9	27.5	34.6	10.1	44.7	1,532
성별	여성	31.1	27.0	33.2	8.6	41.8	1,080
	남성	20.2	28.2	38.2	13.4	51.6	440
연령	20대 이하	48.4	28.4	18.6	4.7	23.3	215
	30대	31.4	29.1	32.3	7.2	39.5	433
	40대	24.2	27.4	38.0	10.4	48.4	434
	50대	18.5	28.2	42.9	10.4	53.3	259
	60대 이상	18.5	21.2	39.7	20.7	60.4	18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8.1	25.5	37.8	8.6	46.4	384
	방배권	22.4	28.7	37.5	11.4	48.9	411
	서초권	30.7	28.2	30.3	10.7	41.0	521
	양재/내곡권	30.7	26.3	34.1	8.8	42.9	205
결혼여부	비혼	41.7	27.7	25.3	5.3	30.6	494
	기혼	21.3	27.1	39	12.6	51.6	992
	기타	26.3	36.8	31.6	5.3	36.9	38
자녀유무	있다	21.7	26.2	38.5	13.5	52.0	911
	없다	37.2	29.5	28.4	4.9	33.3	610

▷ 자녀에 대한 가족 내 역할 교육에 대한 인식

‘평소 자녀에게 가정 내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1%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5.3%로 나타났고, 남성은 17.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표 III-9〉 평소 자녀에게 가정 내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4.5	11.6	43.0	40.8	16.1	1,529
성별	여성	4.6	10.7	42.2	42.5	15.3	1,076
	남성	4.1	13.8	45.1	37.0	17.9	441
연령	20대 이하	7.4	14.0	48.4	30.2	21.4	215
	30대	5.6	16.2	39.4	38.9	21.8	432
	40대	3.2	7.2	41.4	48.1	10.4	432
	50대	3.1	8.5	45.4	43.1	11.6	260
	60대 이상	3.8	13.1	45.9	37.2	16.9	1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4	8.6	42.8	44.1	13.0	383
	방배권	4.2	15.2	44.4	36.3	19.4	408
	서초권	4.6	12.4	42.4	40.5	17.0	523
	양재/내곡권	4.4	7.8	41.7	46.1	12.2	204
결혼여부	비혼	6.7	13.8	44.4	35.1	20.5	493
	기혼	3.6	10.8	42.0	43.5	14.4	990
	기타	0.0	5.3	47.4	47.4	5.3	38
자녀유무	있다	3.4	9.5	42.7	44.3	12.9	911
	없다	6.1	15.0	43.3	35.7	21.1	608

▷ 여성의 일과 가사/육아 병행에 대한 인식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4.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43.7%로 나타났고, 남성은 47.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성의 일과 가사/육아 병행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남.

〈표 Ⅲ-10〉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21.3	33.9	35.2	9.6	44.8	1,527
성별	여성	22.6	33.7	33.7	10.0	43.7	1,077
	남성	18.5	34.2	38.7	8.7	47.4	439
연령	20대 이하	31.8	32.7	28.0	7.5	35.5	214
	30대	23.1	37.7	31.9	7.2	39.1	432
	40대	21.6	35.3	35.1	7.9	43.0	430
	50대	14.7	30.1	44.8	10.4	55.2	259
	60대 이상	13.5	28.1	37.8	20.5	58.3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0.8	34.3	35.6	9.4	45.0	385
	방배권	20.0	31.1	38.0	10.9	48.9	405
	서초권	23.6	34.9	33.3	8.2	41.5	522
	양재/내곡권	18.6	35.8	34.3	11.3	45.6	204
결혼여부	비혼	28.5	34.3	29.9	7.3	37.2	492
	기혼	18.2	33.6	37.7	10.5	48.2	988
	기타	13.2	36.8	36.8	13.2	50.0	38
자녀유무	있다	17.8	34.2	37.4	10.7	48.1	925
	없다	26.7	33.7	31.7	7.9	39.6	606

▷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남성의 육아휴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13.6%로 나타났고, 남성은 2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10.0%p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남.

〈표 III-11〉 남성의 육아휴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54.1	29.0	12.8	4.0	16.8	1,531
성별	여성	59.0	27.3	9.7	3.9	13.6	1,079
	남성	42.7	33.6	19.3	4.3	23.6	440
연령	20대 이하	68.4	23.7	5.6	2.3	7.9	215
	30대	59.8	27.3	10.4	2.5	12.9	433
	40대	53.7	30.3	13.0	3.0	16.0	432
	50대	45.6	33.7	15.7	5.0	20.7	261
	60대 이상	53.7	30.3	13.0	3.0	16.0	18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55.2	29.3	11.0	4.5	15.5	382
	방배권	49.1	30.9	15.8	4.1	19.9	411
	서초권	56.5	27.2	12.3	4.0	16.3	522
	양재/내곡권	56.1	29.3	11.2	3.4	14.6	205
결혼여부	비혼	63.9	25.8	7.5	2.8	10.3	493
	기혼	49.8	30.7	14.9	4.5	19.4	992
	기타	54.1	24.3	18.9	2.7	21.6	37
자녀유무	있다	48.9	31.0	14.9	5.2	20.1	912
	없다	62.5	26.2	9.0	2.3	11.3	608

▷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여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이 살림을 전담할 수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8.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6.3%로 나타났고, 남성은 24.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8.2%p 높게 나타남.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12〉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이 살림을 전담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3.8	15.1	43.5	37.6	18.9	1,532
성별	여성	3.7	12.6	43.0	40.7	16.3	1,079
	남성	3.9	20.6	44.4	31.1	24.5	441
연령	20대 이하	5.6	9.3	30.7	54.4	14.9	215
	30대	2.5	13.4	43.6	40.4	15.9	433
	40대	2.1	12.3	47.9	37.7	14.4	432
	50대	3.8	20.4	43.8	31.9	24.2	260
	60대 이상	8.6	25.3	46.2	19.9	33.9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4	14.8	44.4	37.4	18.2	385
	방배권	4.9	17.4	45.5	32.3	22.3	409
	서초권	4.0	13.8	40.6	41.6	17.8	522
	양재/내곡권	2.0	14.1	43.9	40.0	16.1	205
결혼여부	비혼	4.5	9.7	40.6	45.2	14.2	493
	기혼	3.6	17.6	44.3	34.5	21.2	992
	기타	0.0	18.4	55.3	26.3	18.4	38
자녀유무	있다	3.5	17.7	45.7	33.1	21.2	912
	없다	4.1	11.5	39.7	44.7	15.6	609

▷ 여성의 휴일과 가사에 대한 인식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은 오히려 집안일로 바쁘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2.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6.9%로 나타났고, 남성은 47.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나타남.

〈표 Ⅲ-13〉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은 오히려 집안일로 바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9.5	23.3	44.3	22.9	32.8	1,530
성별	여성	8.0	18.9	45.3	27.8	26.9	1,079
	남성	13.7	33.7	41.5	11.2	47.4	439
연령	20대 이하	14.0	22.8	45.6	17.7	36.8	215
	30대	13.9	27.3	42.1	16.7	41.2	432
	40대	6.7	24.0	42.9	26.5	30.7	434
	50대	6.9	21.5	48.8	22.7	28.4	260
	60대 이상	4.9	15.8	44.3	35.0	20.7	18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4	22.2	45.2	23.2	31.6	383
	방배권	9.3	25.7	40.3	24.7	35.0	409
	서초권	9.9	23.1	44.6	22.4	33.0	523
	양재/내곡권	9.3	20.6	50.5	19.6	29.9	204
결혼여부	비혼	13.8	25.2	42.0	19.1	39.0	493
	기혼	7.6	22.5	45.6	24.4	30.1	992
	기타	8.1	21.6	43.2	27.0	29.7	37
자녀유무	있다	7.5	21.8	44.7	26.0	29.3	912
	없다	12.8	25.8	43.8	17.6	38.6	612

▷ 여성의 지역활동, 자원활동에 대한 인식

‘지역활동, 자원활동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5.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36.6%로 나타났고, 남성은 31.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고정관념이 4.8%p 높게 나타남.

〈표 Ⅲ-14〉 지역활동, 자원활동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19.8	44.9	28.5	6.7	35.2	1,527
성별	여성	19.7	43.7	29.8	6.8	36.6	1,075
	남성	20.2	48.0	25.7	6.1	31.8	440
연령	20대 이하	30.8	45.3	19.6	4.2	23.8	214
	30대	26.6	46.4	21.9	5.1	27.0	433
	40대	16.0	45.7	33.2	5.1	38.3	431
	50대	13.2	46.1	31.4	9.3	40.7	258
	60대 이상	10.3	36.8	39.5	13.5	53.0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8.8	47.3	27.7	6.3	34.0	383
	방배권	18.2	44.2	29.2	8.4	37.6	407
	서초권	22.4	43.5	28.2	5.9	34.1	522
	양재/내곡권	18.6	46.6	27.9	6.9	34.8	204
결혼여부	비혼	29.8	46.7	20.1	3.4	23.5	493
	기혼	14.9	44.7	32.1	8.4	40.5	989
	기타	21.6	29.7	43.2	5.4	48.6	37
자녀유무	있다	15.1	43.9	32.6	8.5	41.1	909
	없다	27.2	46.5	22.4	4.0	26.4	607

▷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0.6%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30.4%로 나타났고, 남성은 31.1%로 남성이 여성보다 0.7%p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표 III-15〉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6.8	23.8	44.3	25.1	30.6	1,531
성별	여성	6.9	23.5	44.3	25.3	30.4	1,078
	남성	6.6	24.5	44.4	24.5	31.1	441
연령	20대 이하	10.7	23.8	44.4	21.0	34.5	214
	30대	7.2	26.2	42.5	24.1	33.4	431
	40대	6.7	26.3	46.9	20.1	33.0	433
	50대	3.8	22.2	43.3	30.7	26.0	261
	60대 이상	5.9	14.5	43.0	36.6	20.4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5.0	24.3	42.1	28.5	29.3	382
	방배권	9.0	25.1	43.3	22.6	34.1	411
	서초권	5.6	23.0	46.7	24.7	28.6	522
	양재/내곡권	8.8	22.0	45.9	23.4	30.8	205
결혼여부	비혼	8.4	25.5	41.8	24.4	33.9	491
	기혼	6.0	23.2	45.6	25.2	29.2	993
	기타	5.3	26.3	39.5	28.9	31.6	38
자녀유무	있다	6.0	23.2	44.7	26.1	29.2	913
	없다	8.1	24.9	43.7	23.4	33.0	607

2)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약간 만족 + 매우 만족’에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81.1%, 남성이 79.2%로 여성이 남성보다 1.9%p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6〉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합계	계
전체		2.5	16.8	70.7	10.0	80.7	1,535
성별	여성	2.3	16.6	71.8	9.3	81.1	1,079
	남성	2.9	17.8	67.3	11.9	79.2	440
연령	20대 이하	4.7	21.0	63.6	10.7	74.3	214
	30대	2.3	15.5	72.5	9.7	82.2	433
	40대	1.8	17.5	72.6	8.1	80.7	434
	50대	2.3	17.6	69.7	10.3	80.0	261
	60대 이상	2.7	12.3	71.1	13.9	85.0	18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1	15.1	69.1	12.7	81.8	385
	방배권	1.7	14.1	74.0	10.2	84.2	411
	서초권	2.7	19.1	69.8	8.4	78.2	523
	양재/내곡권	2.4	19.5	69.8	8.3	78.1	205
결혼여부	비혼	4.1	19.5	66.7	9.7	76.4	493
	기혼	1.6	15.1	72.9	10.4	83.3	994
	기타	5.1	28.2	64.1	2.6	66.7	39
자녀유무	있다	1.8	14.9	73.0	10.4	83.4	914
	없다	3.6	19.8	67.2	9.3	76.5	610

▷ 가정 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과 가사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약간 만족 + 매우 만족’으로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71.8%, 남성이 85.2%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p 저조하게 나타남.

〈표 III-17〉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과 가사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합계	계
전체		2.4	21.6	66.9	9.0	75.9	1,525
성별	여성	2.7	25.4	64.4	7.4	71.8	1,074
	남성	1.8	13.0	72.5	12.7	85.2	440
연령	20대 이하	0.9	18.5	67.3	13.3	80.6	211
	30대	1.4	18.8	69.1	10.7	79.8	430
	40대	3.9	26.5	63.8	5.8	69.6	431
	50대	2.7	25.3	65.1	6.9	72.0	261
	60대 이상	2.7	15.1	71.0	11.3	82.3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8	24.1	63.5	10.5	74.0	381
	방배권	1.7	17.8	70.7	9.8	80.5	409
	서초권	2.9	22.7	66.1	8.3	74.4	519
	양재/내곡권	3.9	21.0	68.3	6.8	75.1	205
결혼여부	비혼	1.7	18.6	69.2	10.5	79.7	484
	기혼	2.7	23.2	65.9	8.3	74.2	993
	기타	5.1	25.6	64.1	5.1	69.2	39
자녀유무	있다	3.1	23.8	65.4	7.8	73.2	913
	없다	1.5	18.5	69.2	10.8	80.0	601

▷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심리적 유대를 62.1%로 가장 높게 꼽았고, 혈연(13.2%), 거주공간(11.8%), 경제공동체(10.8%)를 꼽았으며 법적인 인정은 1.9%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혈연관계는 남성(16.0%)이 여성(12.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유대의 경우, 여성(64.3%)이 남성(57.4%)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혈연	거주공간	경제공동체	심리적 유대	법적인 인정	계
	전체	13.4	11.8	10.8	62.1	1.9	1,532
성별	여성	12.2	11.3	10.3	64.3	1.9	1,076
	남성	16.0	12.6	11.9	57.4	2.0	444
연령	20대 이하	12.1	12.6	10.2	64.2	0.9	215
	30대	7.2	13.6	11.3	67.0	0.9	433
	40대	13.7	9.7	7.4	67.3	1.9	431
	50대	17.3	11.2	11.5	57.3	2.7	260
	60대 이상	22.0	12.9	17.2	43.5	4.3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4.9	9.7	8.9	65.0	1.6	383
	방배권	12.3	14.5	15.2	55.9	2.2	408
	서초권	2.2	100.0	12.2	11.3	10.3	524
	양재/내곡권	15.0	12.1	7.8	63.1	1.9	206
결혼여부	비혼	9.9	11.8	11.2	66.3	0.8	493
	기혼	14.8	11.7	10.6	60.4	2.4	991
	기타	17.9	10.3	7.7	61.5	2.6	39
자녀유무	있다	15.9	11.7	10.4	59.6	2.3	911
	없다	9.3	11.8	11.1	66.4	1.3	610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본인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에 대해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녀 전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가 30.7%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가정생활 21.3%,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가 21.0%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I-19〉 본인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일을 우선시 한다	일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둘다 비슷하다	가정 생활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가정 생활을 우선시 한다	계
전체		4.4	15.3	44.2	28.1	8.0	1,533
성별	여성	3.8	13.1	43.5	30.7	9.0	1,079
	남성	5.9	21.0	46.2	21.3	5.7	442
연령	20대 이하	7.4	20.9	48.8	20.0	2.8	215
	30대	4.6	12.3	50.0	25.7	7.4	432
	40대	2.5	11.8	40.0	35.1	10.6	433
	50대	3.4	17.6	42.5	28.0	8.4	261
	60대 이상	5.9	21.1	38.4	25.9	8.6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2	11.7	46.5	28.1	9.6	385
	방배권	5.4	18.4	42.4	26.0	7.8	389
	서초권	3.6	16.6	43.5	29.4	6.9	524
	양재/내곡권	4.9	12.7	45.9	29.3	7.3	205
결혼여부	비혼	6.9	17.5	52.4	19.1	4.1	492
	기혼	3.1	14.0	40.0	32.9	10.0	1003
	기타	5.1	20.5	48.7	20.5	5.1	39
자녀유무	있다	3.3	14.1	39.5	33.0	10.1	914
	없다	5.9	17.1	51.0	20.9	5.1	608

▷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평일, 주말)

‘귀하는 데에서 가정관리와 돌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가정관리+가족돌보기 평균의 경우 여성이 평일 4.0시간, 주말 5.0시간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평일 2.8시간, 주말 4.2시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간 주중 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이고, 주말에는 0.8시간 정도로 나타남.

〈표 III-20〉 가정관리와 돌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가정관리 평일	가족돌보기 평일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평일 평균	가정관리 주말	가족돌보기 주말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주말 평균
전체		3.8	3.4	3.60	4.9	4.7	4.80
성별	여성	4.2	3.8	4.00	5.2	4.9	5.05
	남성	3.0	2.6	2.80	4.2	4.3	4.25
연령	20대 이하	3.6	2.8	3.20	4.2	3.4	3.80
	30대	4.0	3.8	3.90	5.2	5.1	5.15
	40대	4.1	4.1	4.10	5.6	5.9	5.75
	50대	3.2	2.6	2.90	4.4	3.8	4.10
	60대 이상	3.8	2.7	3.25	4.2	3.1	3.6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8	3.4	3.60	4.9	4.6	4.75
	방배권	3.7	3.4	3.55	4.7	4.7	4.70
	서초권	3.9	3.4	3.65	5.1	4.8	4.95
	양재/내곡권	3.9	3.6	3.75	5.0	4.7	4.85
결혼여부	비혼	3.6	2.9	3.25	4.5	3.8	4.15
	기혼	3.9	3.7	3.80	5.1	5.1	5.10
	기타	3.6	3.0	3.30	5.2	4.2	4.70
자녀유무	있다	4.0	3.8	3.90	5.2	5.3	5.25
	없다	3.6	2.9	3.25	4.5	3.8	4.15

▷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

‘가사/육아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29.5%가 있다고 답변했고, 70.5%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연령별로는 50대, 40대, 30대가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았고, 또 기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 가사/육아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있다		없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443	29.5	1,060	70.5
성별	여성	318	29.2	744	68.4
	남성	122	27.2	309	69.0
연령	20대 이하	37	17.4	176	82.6
	30대	103	24.0	327	76.0
	40대	147	34.3	282	65.7
	50대	95	37.3	160	62.7
	60대 이상	60	35.3	110	64.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31	34.9	244	65.1
	방배권	119	29.4	286	70.6
	서초권	143	27.8	371	72.2
	양재/내곡권	48	24.2	150	75.8
결혼여부	비혼	83	17.0	405	83.0
	기혼	345	34.3	626	64.5
	기타	10	27.8	26	72.2
자녀유무	있다	335	37.6	557	62.4
	없다	103	17.2	497	82.8

3)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 코로나로 인한 가족생활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생활의 가장 큰 변화와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해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21.6%), 식사준비와 가사부담(18.6%), 자녀학업 및 육아부담(17.5%), 특별한 변화가 없다(16.8%), 고립감과 우울감(12.3%), 협소한 공간의 불편함(7.0%), 가족관계의 어색함(3.2%)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25.2%)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식사준비와 가사부담(21.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19.4%)으로 나타남. ‘식사준비와 가사부담’의 경우 여성(21.9%)과 남성(10.0%)의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남. 또한 고립감과 우울감은 여성(13.2%)이 남성(9.2%)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I-22〉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생활의 가장 큰 변화와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자녀학업 및 육아 부담	식사 준비와 가사 부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어색함	협소한 공간의 불편함	고립감과 우울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특별한 변화가 없다	계
전체		17.5	18.6	21.6	3.2	7.0	12.3	3.0	16.8	1,520
성별	여성	17.6	21.9	19.4	2.5	6.7	13.2	2.6	14.2	1,088
	남성	16.5	10.0	25.2	4.2	7.6	9.2	3.8	22.1	448
연령	20대 이하	1.9	10.7	26.5	2.8	10.2	19.1	0.5	28.4	215
	30대	17.8	14.8	23.1	3.7	7.9	12.5	4.2	16.2	433
	40대	32.3	26.2	15.1	2.3	5.1	7.2	1.6	10.2	431
	50대	13.6	21.7	22.5	2.7	8.1	12.0	4.7	14.7	258
	60대 이상	6.3	14.8	26.1	4.0	4.5	15.9	4.0	24.4	17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9.3	19.5	14.3	4.2	6.8	14.8	3.1	18.0	384
	방배권	17.0	16.7	26.0	3.2	6.6	7.8	2.9	18.0	412
	서초권	15.6	18.3	23.7	2.9	6.4	15.1	2.5	15.4	518
	양재/내곡권	19.2	20.7	19.7	1.5	10.3	9.4	3.9	15.3	203
결혼여부	비혼	5.7	11.2	26.8	2.6	9.3	18.3	3.0	23.1	493
	기혼	24.0	22.9	18.1	3.3	5.9	9.3	3.1	13.6	980
	기타	7.7	7.7	41.0	2.6	5.1	15.4	0.0	20.5	39
자녀유무	있다	26.0	22.9	17.5	3.3	5.7	9.0	2.9	12.8	901
	없다	5.3	12.3	27.6	2.6	8.9	17.2	3.1	23.0	609

▷ 코로나 대응 긴급히 필요한 정책서비스

‘코로나에 대응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취업 및 지원정보 제공(29.9%), 가족구성원이 일(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지원(16.9%), 긴급돌봄서비스(16.0%), 우리키움센터 서비스 확대(11.9%), 가족상담 및 관계회복서비스(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3〉 코로나에 대응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긴급 돌봄 서비스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서비스 확대	아동 급식 카드 이용 대상 및 활용처 확대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취업 및 지원 정보 제공	가족 상담 및 관계 회복 서비스 확대	가족 구성원의 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지원	기타	계
전체		16.0	11.9	9.5	29.9	10.5	16.9	5.4	1,493
성별	여성	15.9	11.9	9.3	29.3	10.1	18.1	5.3	1,050
	남성	16.7	11.8	10.2	30.8	10.6	14.4	5.6	432
연령	20대 이하	15.4	7.9	6.5	43.9	7.5	14.0	4.7	214
	30대	25.1	13.4	9.9	25.6	8.5	12.9	4.7	426
	40대	14.1	15.3	15.6	20.3	9.8	19.4	5.5	418
	50대	8.0	7.2	6.8	35.9	13.5	23.9	4.8	251
	60대 이상	10.7	11.3	2.3	37.9	16.4	13.6	7.9	17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7.2	12.4	7.4	27.0	10.1	22.0	4.0	378
	방배권	16.0	15.0	12.0	29.5	10.4	12.5	4.6	393
	서초권	13.8	9.3	8.7	33.1	12.4	17.2	5.4	516
	양재/내곡권	19.3	11.2	11.2	26.9	6.6	15.2	9.6	197
결혼여부	비혼	17.8	9.4	7.8	37.7	9.2	12.9	5.1	488
	기혼	15.2	13.3	10.6	24.9	11.1	19.2	5.6	959
	기타	15.8	7.9	5.3	47.4	13.2	10.5	0.0	38
자녀유무	있다	14.6	13.5	11.0	24.7	10.8	19.7	5.8	883
	없다	18.2	9.7	7.5	36.9	10.4	12.7	4.7	599

▷ 서초구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서초구에서 가족 내 성평등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아래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다’ 36.7%, ‘잘 알고 있다’ 3.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대체로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한 비율이 43.8%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은 3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비혼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4〉 서초구에서 가족 내 성평등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아래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3.8	36.7	45.5	14.0	1,533
성별	여성	4.2	39.6	46.1	10.2	1,079
	남성	3.2	28.9	44.2	23.7	443
연령	20대 이하	0.9	29.8	44.7	24.7	215
	30대	3.9	36.3	45.3	14.5	433
	40대	4.6	39.6	45.4	10.4	432
	50대	2.3	39.7	45.0	13.0	262
	60대 이상	7.6	35.3	46.2	10.9	18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6	35.1	46.8	14.5	385
	방배권	5.1	35.5	46.2	13.2	409
	서초권	2.9	38.6	45.3	13.2	523
	양재/내곡권	3.9	37.1	42.0	17.1	205
결혼여부	비혼	2.8	30.4	45.6	21.1	493
	기혼	4.3	39.7	45.1	10.9	992
	기타	2.6	35.9	53.8	7.7	39
자녀유무	있다	5.0	39.9	44.5	10.6	913
	없다	2.1	31.5	47.1	19.2	609

▷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서초구에서 향후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가족돌봄 사업확대(27.8%), 가족소통/교류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26.0%),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사업 발굴 및 확산(13.9%), 아버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11.8%),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가족돌봄 사업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가족 소통/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30/40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 사업 확대’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25〉 서초구에서 향후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가족 돌봄 사업 확대	가족 소통/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 사업 발굴 및 확산	아버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	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	양성평등 교육 대상자 확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타	계
전체		27.8	26.0	13.9	11.8	8.4	4.8	4.2	3.0	1,513
성별	여성	27.7	23.2	14.5	13.6	8.9	5.0	4.5	2.6	1,062
	남성	27.8	32.6	13.0	8.0	7.1	4.1	3.6	3.9	439
연령	20대 이하	23.7	18.6	16.3	11.2	13.0	5.1	8.8	3.3	215
	30대	29.5	21.8	16.7	13.0	10.4	4.4	2.6	1.6	431
	40대	32.0	28.8	14.8	10.9	5.1	3.7	3.0	1.6	431
	50대	25.4	30.2	7.9	12.3	7.1	6.7	6.3	4.0	252
	60대 이상	22.5	32.6	11.2	11.2	7.3	5.1	2.2	7.9	17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0.8	25.8	12.9	11.6	8.4	5.0	3.7	1.8	380
	방배권	29.9	29.1	14.2	10.7	7.0	2.5	3.2	3.5	402
	서초권	23.0	25.5	15.4	12.4	9.7	4.6	6.0	3.5	518
	양재/내곡권	30.0	22.7	10.8	13.8	7.9	8.9	3.0	3.0	203
결혼여부	비혼	23.5	22.9	16.1	11.4	13.3	5.3	4.9	2.7	490
	기혼	29.9	27.8	13.3	11.5	5.9	4.4	4.1	3.1	977
	기타	31.6	21.1	5.3	23.7	10.5	2.6	0.0	5.3	38
자녀유무	있다	30.0	28.3	12.4	11.8	5.8	4.3	4.2	3.2	898
	없다	24.5	22.6	16.5	11.9	12.4	5.3	4.3	2.5	605

3

분석 요약

1) 가족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자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 가사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육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일/가정 양립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여가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위의 질문 내용에 대한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배우자 관련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부부 간 경제권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19.8%p)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체 문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사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사’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식사 준비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의 식사 준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타 집안일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아이의 진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남. 자녀 행동에 대해서도 성별 고정관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녀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일/가정 양립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일과 가사/육아 병행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녀 모두 강하게 나타남.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여가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여성의 휴일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20.5%p)가 전체 문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지역활동 및 자원활동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나타남.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

- 삶과 가사분담 만족도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으며, 기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II-16>. '가정 내 역할과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이 높게(13.4%p)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II-17>
-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별에 따라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남성과 여성 모두 심리적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심리적 유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혈연, 경제공동체, 거주공간, 법적인 인정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일과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남녀 모두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관리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평일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보기 모두 1.2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 가정관리 1시간, 가족돌보기 0.6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3)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관련

- 서초구 가족 내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과 여성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포/잠원권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초구에서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돌봄 사업과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 사업과 소통 프로그램에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과 인식개선 등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IV

서초구 안전분야 조사결과

1. 안전분야 설문문항
2. 안전분야 조사결과
3. 분석 요약

IV

서초구 안전분야 조사결과

1

안전분야 설문 문항

1) 안전분야 설문주제

-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
-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등

2) 안전분야 설문문항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주거환경 인식		1-1.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
		1-2.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도로	1)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다.	4점 척도
		2)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3)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4)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	
	시설 관리	5) 공원과 녹지조성이 잘 되어있다.	
		6)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	
		7) 장마철 예방대책이나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8)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제		설문 문항	비 고
주거환경 인식	안전	9)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	4점 척도
		10)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11)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곳길이 안전하다.	
		12)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	
		13)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	
		14)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	
	개선	1-3.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요구 창구	문항선택
		1-4.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2-1.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4점 척도	
	2-2.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4점 척도	
	1) 서초형 안심보행길		
	2) 활주로형 횡단보도		
	3) LED 바닥신호등		
	4)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5) 골목길 안심 CCTV		
	6) 구민 자전거 보험		
	7)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		
	8)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폴컵		
	9)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10) 수해복구·예방대책		
	11)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번캔버스		
	12)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2-3.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	
	2-3-1. 필요 정책 및 개선 요구사항	자유 기재	
	2-4.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식	4점 척도	
	1) 주거환경 개선		
	2) 정주의식 변화		
	3) 주인의식 변화		
	4) 안전사업 참여 의향		
5) 구정활동 참여 의향			

2

안전분야 조사결과

1) 주거환경 인식

▷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긍정적(‘약간 만족 +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91.4%로 나타났고, 남성은 9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반포/잠원권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93.2%로 가장 높았으며, 양재/내곡권이 8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매우만족’ 합계	계
전체		0.9	8.0	77.0	14.1	91.1	1,530
성별	여성	0.9	7.6	78.7	12.7	91.4	1,075
	남성	0.9	8.8	72.5	17.8	90.3	444
연령	20대 이하	0.9	9.4	73.7	16.0	89.7	213
	30대	2.1	9.0	74.5	14.4	88.9	431
	40대	0.5	6.2	79.0	14.3	93.3	433
	50대	0.4	7.7	77.7	14.2	91.9	260
	60대 이상	0.0	8.1	81.2	10.8	92.0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3	5.5	75.0	18.2	93.2	384
	방배권	1.0	8.4	77.8	12.8	90.6	406
	서초권	0.4	7.1	79.4	13.2	92.6	524
	양재/내곡권	1.5	14.1	73.7	10.7	84.4	205
결혼여부	비혼	1.8	10.2	72.8	15.2	88.0	492
	기혼	0.5	7.2	78.5	13.8	92.3	990
	기타	0.0	2.6	89.7	7.7	97.4	39
자녀유무	있다	0.5	7.3	78.0	14.1	92.1	913
	없다	1.5	9.1	75.1	14.3	89.4	607

▷ 인도와 차도의 구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한지’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5.8%로 나타났고, 남성은 18.8%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2.1	14.6	53.8	29.5	16.7	1,541
성별	여성	2.0	13.8	54.4	29.8	15.8	1,083
	남성	2.2	16.6	52.5	28.7	18.8	446
연령	20대 이하	2.3	14.0	58.1	25.6	16.3	215
	30대	1.4	16.9	58.7	23.1	18.3	433
	40대	2.1	14.7	54.5	28.7	16.8	435
	50대	2.3	12.6	48.1	37.0	14.9	262
	60대 이상	3.2	12.7	43.9	40.2	15.9	18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6	9.0	51.2	38.2	10.6	387
	방배권	3.4	18.5	54.0	24.1	21.9	411
	서초권	1.3	16.2	57.2	25.3	17.5	526
	양재/내곡권	1.9	14.1	51.0	33.0	16.0	206
결혼여부	비혼	1.2	15.6	57.1	26.1	16.8	494
	기혼	2.3	14.2	52.5	31.0	16.5	998
	기타	7.5	15.5	42.5	35.0	23.0	40
자녀유무	있다	2.3	14.4	50.6	32.8	16.7	919
	없다	1.8	15.2	58.3	24.7	17.0	611

▷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4.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3.9%로 나타났고, 남성은 16.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등 도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4	13.4	56.7	28.5	14.8	1,541
성별	여성	1.3	12.6	58.1	28.0	13.9	1,084
	남성	1.8	14.8	53.3	30.1	16.6	445
연령	20대 이하	1.4	12.1	60.5	26.0	13.5	215
	30대	1.8	14.8	60.3	23.1	16.6	433
	40대	1.1	13.3	58.2	27.4	14.4	435
	50대	1.9	11.0	52.1	35.0	12.9	263
	60대 이상	0.5	15.4	46.8	37.2	15.9	18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8	10.8	53.6	34.8	11.6	388
	방배권	2.2	17.0	56.9	23.8	19.2	411
	서초권	1.1	13.9	59.5	25.5	15.0	526
	양재/내곡권	1.5	10.7	54.6	33.2	12.2	205
결혼여부	비혼	1.6	14.8	58.3	25.3	16.4	494
	기혼	1.4	12.6	56.2	29.8	14.0	998
	기타	0.0	17.5	52.5	30.0	17.5	40
자녀유무	있다	1.4	12.5	55.0	31.1	13.9	919
	없다	1.5	14.7	59.2	24.5	16.2	611

▷ 도로의 안전시설물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5.3%로 나타났고, 남성은 18.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4〉 도로의 안전시설물이 불편함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0	15.4	57.1	26.5	16.4	1,537
성별	여성	1.0	14.3	57.8	26.9	15.3	1,079
	남성	0.7	18.2	55.4	25.8	18.9	446
연령	20대 이하	0.9	12.6	56.5	29.9	13.5	214
	30대	0.7	18.7	57.3	23.3	19.4	433
	40대	1.4	12.9	60.5	25.3	14.3	435
	50대	1.1	13.7	56.1	29.0	14.8	262
	60대 이상	0.5	19.4	51.1	29.0	19.9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5	14.0	54.4	31.1	14.5	386
	방배권	1.0	16.5	61.6	20.9	17.5	411
	서초권	0.8	15.8	58.2	25.2	16.6	524
	양재/내곡권	2.0	15.1	50.7	32.2	17.1	205
결혼여부	비혼	0.6	17.4	55.8	26.2	18.0	493
	기혼	1.2	14.3	57.8	26.7	15.5	995
	기타	0.0	17.5	60.0	22.5	17.5	40
자녀유무	있다	1.3	14.2	56.9	27.6	15.5	919
	없다	0.5	17.2	57.4	24.9	17.7	610

▷ 집 주변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9.2%로 나타났고, 남성은 38.4%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5〉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집 주변의 주차가 편리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6.2	25.8	44.3	23.7	32.0	1,536
성별	여성	5.8	23.4	46.4	24.3	29.2	1,079
	남성	7.2	31.2	39.1	22.5	38.4	446
연령	20대 이하	4.7	22.4	48.6	24.3	27.1	214
	30대	6.7	28.5	45.1	19.7	35.2	432
	40대	6.7	26.9	43.9	22.5	33.6	435
	50대	6.1	22.9	46.6	24.4	29.0	262
	60대 이상	5.4	25.3	35.5	33.9	30.7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4.9	26.4	39.5	29.2	31.3	387
	방배권	6.3	28.3	46.3	19.0	34.6	410
	서초권	5.7	26.4	45.9	22.0	32.1	523
	양재/내곡권	9.3	18.5	45.9	26.3	27.8	205
결혼여부	비혼	5.9	27.6	44.1	22.4	33.5	492
	기혼	6.3	24.9	44.3	24.5	31.2	996
	기타	7.5	30.0	42.5	20.0	37.5	40
자녀유무	있다	6.3	25.0	43.7	25.0	31.3	916
	없다	5.9	27.3	45.0	21.8	33.2	609

▷ 공원과 녹지조성

‘공원과 녹지조성이 잘 되어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7.5%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7.7%로 나타났고, 남성은 17.1%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6〉 공원과 녹지조성이 잘 되어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2.5	15.0	51.8	30.7	17.5	1,537
성별	여성	2.3	15.3	52.2	30.1	17.6	1,082
	남성	2.9	14.2	50.6	32.3	17.1	443
연령	20대 이하	1.9	12.1	56.1	29.9	14.0	214
	30대	3.9	13.4	54.7	27.9	17.3	433
	40대	1.2	17.6	52.7	28.6	18.8	433
	50대	3.1	14.9	46.6	35.5	18.0	262
	60대 이상	2.1	16.0	46.3	35.6	18.1	18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8	9.8	53.6	34.8	11.6	388
	방배권	2.9	17.9	54.9	24.3	20.8	408
	서초권	2.5	18.5	50.0	29.0	21.0	524
	양재/내곡권	2.4	9.7	48.5	39.3	12.1	206
결혼여부	비혼	3.0	13.8	54.2	29.0	16.8	493
	기혼	2.2	15.5	50.9	31.5	17.7	995
	기타	2.5	17.5	55.0	25.0	20.0	40
자녀유무	있다	2.4	15.9	50.5	31.1	18.3	916
	없다	2.6	13.6	53.9	29.8	16.2	610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관리**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1.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51.2%로 나타났고, 남성은 5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7〉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5.0	36.3	37.6	11.1	51.3	1,537
성별	여성	14.2	37.0	37.7	11.0	51.2	1,081
	남성	16.2	34.9	37.4	11.5	51.1	444
연령	20대 이하	12.6	41.9	33.0	12.6	54.5	215
	30대	14.6	30.3	41.7	13.4	44.9	432
	40대	15.9	36.2	38.0	9.9	52.1	434
	50대	14.0	39.0	37.1	9.8	53.0	264
	60대 이상	17.8	39.5	33.5	9.2	57.3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2.9	39.9	35.6	11.6	52.8	388
	방배권	16.4	38.6	36.2	8.8	55.0	409
	서초권	15.8	35.7	36.3	12.2	51.5	524
	양재/내곡권	13.7	27.3	48.3	10.7	41.0	205
결혼여부	비혼	15.7	35.4	37.2	11.8	51.1	492
	기혼	14.5	36.7	38.1	10.6	51.2	997
	기타	20.0	37.5	32.5	10.0	57.5	40
자녀유무	있다	15.9	36.0	37.9	10.1	51.9	917
	없다	13.8	36.6	37.3	12.3	50.4	609

▷ 장마철 예방대책 및 수해복구

‘장마철 예방대책이나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4.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3.7%로 나타났고, 남성은 16.2%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8〉 장마철 예방대책이나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0.8	13.6	63.5	22.0	14.4	1,535
성별	여성	0.7	13.0	64.3	22.0	13.7	1,080
	남성	0.9	15.3	61.4	22.3	16.2	443
연령	20대 이하	0.9	15.0	58.4	25.7	15.9	214
	30대	1.6	16.2	61.6	20.6	17.8	432
	40대	0.2	12.4	65.9	21.4	12.6	434
	50대	1.1	10.7	65.3	22.9	11.8	262
	60대 이상	0.0	13.4	66.1	20.4	13.4	1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5	9.8	64.2	25.4	10.3	386
	방배권	1.2	12.4	65.4	21.0	13.6	410
	서초권	0.6	16.1	61.5	21.8	16.7	522
	양재/내곡권	1.0	16.0	65.5	17.5	17.0	206
결혼여부	비혼	1.2	16.7	60.2	22.0	17.9	492
	기혼	0.6	12.3	65.3	21.8	12.9	994
	기타	2.5	12.5	67.5	17.5	15.0	40
자녀유무	있다	0.7	12.6	65.1	21.7	13.3	916
	없다	1.2	15.3	61.5	22.0	16.5	608

▷ 겨울철 제설작업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8.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8.8%로 나타났고, 남성은 1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9〉 겨울철 제설작업이 제때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2.3	16.1	57.2	24.4	18.4	1,539
성별	여성	2.1	16.7	57.6	23.5	18.8	1,081
	남성	2.5	15.0	55.6	26.9	17.5	446
연령	20대 이하	0.0	15.9	50.9	33.2	15.9	214
	30대	3.7	14.3	57.0	24.9	18.0	433
	40대	1.8	16.8	60.4	21.0	18.6	434
	50대	2.3	16.4	59.2	22.1	18.7	262
	60대 이상	3.2	19.0	54.5	23.3	22.2	18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8	12.4	56.2	29.6	14.2	388
	방배권	2.9	19.0	55.4	22.7	21.9	410
	서초권	1.3	17.2	58.6	22.9	18.5	524
	양재/내곡권	4.4	14.6	60.2	20.9	19.0	206
결혼여부	비혼	2.0	16.2	54.0	27.8	18.2	493
	기혼	2.4	16.2	59.0	22.4	18.6	997
	기타	5.0	15.0	55.0	25.0	20.0	40
자녀유무	있다	2.6	16.2	59.0	22.1	18.8	918
	없다	2.0	16.1	54.6	27.4	18.1	610

▷ 주간 및 야간 골목길 안전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6.9%로 나타났고, 남성은 14.4%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0〉 주간 및 야간에 골목길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7	14.5	57.3	26.5	16.2	1,539
성별	여성	1.7	15.2	58.0	25.2	16.9	1,081
	남성	1.6	12.8	55.6	30.0	14.4	446
연령	20대 이하	2.8	15.3	58.6	23.3	18.1	215
	30대	2.8	16.4	58.4	22.4	19.2	433
	40대	1.1	15.2	57.9	25.7	16.3	435
	50대	0.4	10.0	59.4	30.3	10.4	261
	60대 이상	1.1	13.8	49.5	35.6	14.9	18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0	13.4	56.1	29.5	14.4	387
	방배권	2.0	12.7	60.1	25.2	14.7	409
	서초권	2.3	16.3	56.7	24.7	18.6	526
	양재/내곡권	0.5	16.0	56.3	27.2	16.5	206
결혼여부	비혼	3.2	16.2	57.1	23.5	19.4	494
	기혼	1.0	13.3	57.5	28.2	14.3	997
	기타	0.0	22.5	55.0	22.5	22.5	40
자녀유무	있다	1.1	12.6	57.6	28.7	13.7	917
	없다	2.6	17.3	56.6	23.4	19.9	611

▷ 집 주변 CCTV 설치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0.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1.3%로 나타났고, 남성은 1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양재/내곡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1〉 집 주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2.6	17.8	57.6	22.0	20.4	1,534
성별	여성	2.7	18.6	57.9	20.8	21.3	1,080
	남성	2.3	16.3	56.1	25.3	18.6	442
연령	20대 이하	3.3	18.7	52.3	25.7	22.0	214
	30대	3.5	19.2	56.7	20.6	22.7	432
	40대	2.1	17.9	62.3	17.7	20.0	435
	50대	1.5	16.4	58.4	23.7	17.9	262
	60대 이상	2.7	14.7	54.3	28.3	17.4	184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6	18.4	56.4	23.6	20.0	385
	방배권	2.9	16.2	59.6	21.3	19.1	408
	서초권	3.0	17.7	58.2	21.1	20.7	526
	양재/내곡권	2.0	21.1	54.9	22.1	23.1	204
결혼여부	비혼	3.9	19.1	54.1	23.0	23.0	492
	기혼	2.0	17.4	58.9	21.7	19.4	993
	기타	2.5	12.5	65.0	20.0	15.0	40
자녀유무	있다	2.1	17.5	58.6	21.8	19.6	914
	없다	3.3	18.4	55.7	22.7	21.7	609

▷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9.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9.9%로 나타났고, 남성은 19.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양재/내곡권과 서초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2〉 학교 주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1.8	17.9	58.0	22.3	19.7	1,532
성별	여성	1.9	18.0	58.1	22.0	19.9	1,075
	남성	1.8	17.8	57.3	23.1	19.6	445
연령	20대 이하	0.9	14.0	60.3	24.8	14.9	214
	30대	1.2	20.7	59.3	18.8	21.9	430
	40대	3.0	19.4	57.8	19.8	22.4	434
	50대	1.9	15.3	57.3	25.6	17.2	262
	60대 이상	1.6	16.2	54.6	27.6	17.8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3	13.2	61.4	25.1	13.5	386
	방배권	2.0	19.6	57.9	20.5	21.6	404
	서초권	2.9	19.0	58.1	20.0	21.9	525
	양재/내곡권	1.5	20.4	53.4	24.8	21.9	206
결혼여부	비혼	1.0	17.1	60.0	21.8	18.1	490
	기혼	2.3	18.5	56.9	22.2	20.8	994
	기타	0.0	10.3	59.0	30.8	10.3	39
자녀유무	있다	2.5	18.7	55.7	23.1	21.2	915
	없다	0.8	16.7	61.4	21.1	17.5	606

▷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2.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42.5%로 나타났고, 남성은 4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3〉 산책 시 반려동물 보호구 착용이 잘되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합계	계
전체		7.8	35.0	44.6	12.6	42.8	1,538
성별	여성	7.7	34.8	44.9	12.6	42.5	1,079
	남성	8.1	35.8	43.2	13.0	43.9	447
연령	20대 이하	7.4	27.3	51.9	13.4	34.7	216
	30대	8.6	30.6	47.2	13.7	39.2	432
	40대	7.6	37.1	44.9	10.4	44.7	434
	50대	6.9	41.2	37.8	14.1	48.1	262
	60대 이상	8.6	40.1	38.5	12.8	48.7	18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2	32.0	44.1	16.8	39.2	388
	방배권	7.4	39.2	42.6	10.8	46.6	408
	서초권	8.2	34.3	46.3	11.2	42.5	525
	양재/내곡권	8.7	35.0	45.1	11.2	43.7	206
결혼여부	비혼	8.1	30.1	48.9	12.9	38.2	495
	기혼	7.8	37.8	41.9	12.5	45.6	995
	기타	5.0	25.0	60.0	10.0	30.0	40
자녀유무	있다	8.3	38.0	41.8	11.9	46.3	916
	없다	7.0	30.8	48.4	13.7	37.8	611

▷ 집 주변 유흥시설로 인한 야간통행 불안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에 대해 부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9.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40.0%로 나타났고, 남성은 36.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4〉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 통행이 불안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21.9	38.8	31.2	8.1	39.3	1,540
성별	여성	21.6	38.3	31.9	8.1	40.0	1,080
	남성	23.2	40.2	28.6	8.0	36.6	448
연령	20대 이하	25.6	36.7	32.1	5.6	37.7	215
	30대	19.2	34.4	36.5	9.9	46.4	433
	40대	21.7	42.4	27.9	8.1	36.0	434
	50대	22.7	44.7	25.4	7.2	32.6	264
	60대 이상	23.5	35.8	32.6	8.0	40.6	18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8.4	39.5	23.3	8.8	32.1	387
	방배권	18.0	37.8	36.3	7.8	44.1	410
	서초권	17.7	37.8	35.2	9.3	44.5	526
	양재/내곡권	27.7	41.7	26.7	3.9	30.6	206
결혼여부	비혼	23.5	37.4	32.2	6.9	39.1	494
	기혼	21.1	39.4	30.7	8.8	39.5	997
	기타	24.4	43.9	29.3	2.4	31.7	41
자녀유무	있다	21.3	39.9	30.1	8.6	38.7	919
	없다	22.8	37.5	32.6	7.0	39.6	610

▷ 집 주변 골목 흡연으로 인한 불편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에 대해 부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61.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63.9%로 나타났고, 남성은 57.1%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방배권의 부정 응답 비율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5〉 집 주변 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아 불편하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8.6	29.5	41.1	20.7	61.8	1,540
성별	여성	8.4	27.7	41.9	22.0	63.9	1,081
	남성	9.2	33.8	39.4	17.7	57.1	447
연령	20대 이하	12.1	29.8	38.1	20.0	58.1	215
	30대	7.6	26.1	43.9	22.4	66.3	433
	40대	6.4	29.9	43.9	19.8	63.7	435
	50대	8.0	33.6	37.8	20.6	58.4	262
	60대 이상	12.8	30.9	36.2	20.2	56.4	188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3	34.5	41.2	14.9	56.1	388
	방배권	5.6	27.5	43.6	23.4	67.0	411
	서초권	9.3	29.0	38.9	22.9	61.8	525
	양재/내곡권	11.2	25.4	42.9	20.5	63.4	205
결혼여부	비혼	10.7	26.9	41.3	21.1	62.4	494
	기혼	7.6	30.8	40.6	21.0	61.6	996
	기타	7.3	31.7	51.2	9.8	61.0	41
자녀유무	있다	7.7	31.5	39.8	21.0	60.8	918
	없다	9.8	27.2	42.9	20.1	63.0	611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요구 창구

‘귀하가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을 느꼈을 때, 개선을 요구하는 창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있지만 직접 요구해본 적은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21.8%)’,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10.9%)’ 순으로 나타남.

〈표 IV-16〉 귀하가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을 느꼈을 때, 개선을 요구하는 창구는 무엇입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구청 민원실 이나 홈페이지	조은희 서초구 청장 문자나 카톡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지만 직접 요구해본 적은 없음	기타	계
전체		21.8	6.0	10.9	57.8	3.4	1,538
성별	여성	22.2	6.4	9.5	58.7	3.2	1,082
	남성	20.5	5.4	14.6	56.1	3.4	444
연령	20대 이하	20.0	4.2	13.5	58.6	3.7	215
	30대	18.7	6.0	15.2	59.4	0.7	433
	40대	23.2	9.0	11.5	53.1	3.2	435
	50대	27.0	3.8	6.1	60.1	3.0	263
	60대 이상	20.5	4.9	3.8	60.5	10.3	18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0.9	6.5	10.1	59.4	3.1	387
	방배권	18.8	9.0	7.6	60.4	4.2	409
	서초권	24.2	4.4	14.9	53.1	3.4	525
	양재/내곡권	23.8	3.9	9.2	60.7	2.4	206
결혼여부	비혼	18.6	3.8	14.6	59.9	3.0	494
	기혼	23.6	7.0	8.9	57.0	3.5	997
	기타	12.8	10.3	17.9	53.8	5.1	39
자녀유무	있다	23.9	7.1	8.4	56.7	3.9	916
	없다	18.3	4.6	14.9	59.7	2.5	611

▷ 불편함이나 안전상 위험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물은 결과 ‘일상이 바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22.5%)’,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19.2%)’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이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상이 바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특별한 이유 없음	계
전체		22.5	19.2	10.9	27.4	20.0	1,438
성별	여성	22.7	20.2	9.8	27.0	20.2	1,047
	남성	22.3	16.4	13.1	28.4	19.7	426
연령	20대 이하	21.2	17.3	8.2	28.8	24.5	208
	30대	24.4	19.0	13.1	30.5	12.9	426
	40대	22.2	22.2	8.4	28.5	18.7	418
	50대	22.0	16.8	12.0	27.6	21.6	250
	60대 이상	21.1	17.1	13.1	14.9	33.7	17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0.3	18.2	9.6	29.9	21.9	374
	방배권	19.9	22.0	15.1	25.1	17.9	391
	서초권	27.0	17.6	9.6	26.4	19.4	511
	양재/내곡권	20.8	19.3	8.1	30.5	21.3	197
결혼여부	비혼	22.0	16.8	10.5	26.9	20.4	495
	기혼	21.3	19.2	10.9	26.2	17.8	1003
	기타	24.4	17.1	2.4	19.5	31.7	41
자녀유무	있다	22.8	20.4	11.4	25.9	19.6	879
	없다	22.2	17.3	10.4	29.6	20.4	594

2)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

‘서초구에서 주거생활 안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 긍정적(‘잘 알고 있다 + 대체로 알고 있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50.5%로 나타났고, 남성은 4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성별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반포/잠원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4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18〉 서초구에서 주거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3.6	44.4	44.8	7.2	1,545
성별	여성	3.4	47.1	44.0	5.5	1,085
	남성	4.2	37.7	46.9	11.2	448
연령	20대 이하	1.4	40.3	47.2	11.1	216
	30대	3.7	44.6	44.1	7.6	433
	40대	3.7	45.7	44.4	6.2	435
	50대	3.4	46.8	44.5	5.3	263
	60대 이상	6.3	42.4	44.5	6.8	191
	반포/잠원권	3.4	41.8	45.9	9.0	388
거주지역	방배권	4.1	41.4	48.4	6.1	411
	서초권	3.0	48.3	41.3	7.4	528
	양재/내곡권	4.8	45.4	44.0	5.8	207
	비혼	2.2	41.8	46.3	9.7	495
결혼여부	기혼	4.3	45.4	44.3	6.0	1000
	기타	4.9	46.3	41.5	7.3	41
	있다	4.7	46.3	43.2	5.9	922
자녀유무	없다	2.1	41.0	47.5	9.3	612

▷ 서초형 안심보행길

‘서초형 안심보행길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5.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44.7%로 나타났고, 남성은 48.7%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서초형 안심보행길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2.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4.1%, 남성은 80.1%로 나타남.

〈표 IV-19〉 서초형 안심보행길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9.6	36.3	43.7	10.4	2.3	14.9	57.8	25.1
성별	여성	8.9	35.8	45.2	10.1	1.3	14.6	57.4	26.7
	남성	11.5	37.2	40.3	11.0	4.3	15.6	58.6	21.5
연령	20대 이하	14.8	39.8	32.4	13.0	2.3	21.0	56.1	20.6
	30대	9.5	36.9	45.0	8.6	3.0	19.4	58.1	19.4
	40대	9.0	35.0	47.7	8.3	1.6	11.0	59.2	28.2
	50대	6.9	36.8	43.7	12.6	1.6	11.3	58.2	28.9
	60대 이상	9.1	33.9	44.1	12.9	2.9	11.2	55.3	30.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0.9	38.7	41.8	8.6	1.1	15.3	56.8	26.8
	방배권	9.4	37.0	43.0	10.6	2.6	13.3	60.9	23.3
	서초권	7.4	35.0	45.6	12.0	3.3	15.4	56.9	24.4
	양재/내곡권	12.6	34.8	43.0	9.7	1.5	16.6	55.1	26.8
결혼여부	비혼	11.5	39.2	39.2	10.1	2.9	20.0	57.0	20.2
	기혼	8.9	35.4	45.5	10.3	1.9	12.3	58.3	27.5
	기타	5.0	30.0	52.5	12.5	5.4	16.2	54.1	24.3
자녀유무	있다	8.4	34.5	46.2	10.9	1.7	11.3	58.5	28.5
	없다	11.4	39.1	40.0	9.5	3.2	20.2	56.9	19.7

▷ 활주로형 횡단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7.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37.2%로 나타났고, 남성은 38.1%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5.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5.7%, 남성은 83.6%로 나타남.

〈표 IV-20〉 활주로형 횡단보도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8.0	29.4	41.4	21.2	1.9	12.9	51.2	34.0
성별	여성	6.7	30.5	40.9	21.9	1.5	12.7	50.9	34.8
	남성	11.5	26.6	42.2	19.6	2.8	13.6	51.0	32.6
연령	20대 이하	11.1	29.6	37.5	21.8	3.7	17.3	53.3	25.7
	30대	8.1	28.5	45.1	18.3	1.4	15.3	53.8	29.6
	40대	6.7	27.9	42.9	22.6	1.2	9.3	49.3	40.2
	50대	8.4	30.3	40.6	20.7	2.7	10.6	50.6	36.1
	60대 이상	7.1	33.5	34.6	24.7	1.8	14.1	48.2	35.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0	29.1	40.8	23.1	0.8	15.0	45.9	38.3
	방배권	9.4	29.5	40.1	21.0	2.3	11.2	54.6	32.0
	서초권	6.1	29.7	43.2	21.1	2.2	13.3	53.1	31.4
	양재/내곡권	11.7	29.3	41.5	17.6	2.9	11.3	50.5	35.3
결혼여부	비혼	9.7	30.1	42.8	17.4	2.7	17.1	53.7	26.5
	기혼	7.3	29	41.3	22.5	1.6	11.1	49.7	37.7
	기타	7.9	34.2	31.6	26.3	2.7	8.1	54.1	35.1
자녀유무	있다	7.3	29.6	40.5	22.7	1.5	10.4	49.5	38.6
	없다	9.3	29.3	43.0	18.3	2.7	16.9	53.7	26.7

▷ LED 바닥신호등

‘LED 바닥신호등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0.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30.2%로 나타났고, 남성은 32.2%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7.5%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7.8%, 남성은 86.7%로 나타남.

〈표 IV-21〉 LED 바닥신호등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7.5	23.3	41.7	27.6	1.7	10.8	45.8	41.7
성별	여성	7.2	23.0	41.9	27.9	1.6	10.6	44.8	43.0
	남성	7.9	24.3	40.5	27.3	1.6	11.7	47.7	39.0
연령	20대 이하	10.2	20.8	34.7	34.3	2.3	15.4	44.9	37.4
	30대	6.5	21.8	44.7	27.1	2.1	12.2	43.9	41.8
	40대	7.6	23.0	42.5	26.9	0.9	7.5	45.8	45.8
	50대	7.3	25.7	44.4	22.6	1.9	10.4	48.1	39.6
	60대 이상	7.0	27.0	36.2	29.7	1.2	11.0	48.0	39.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8	22.5	39.6	28.0	0.8	10.2	46.2	42.8
	방배권	7.7	26.9	42.7	22.7	2.8	11.8	51.9	33.5
	서초권	4.8	20.9	43.2	31.2	1.7	10.3	42.8	45.2
	양재/내곡권	9.2	24.8	39.3	26.7	1.0	11.3	42.2	45.6
결혼여부	비혼	9.1	20.2	41.4	29.3	2.7	12.4	44.5	40.4
	기혼	6.8	24.8	42.2	26.2	1.1	10.0	47.0	41.9
	기타	7.7	25.6	30.8	35.9	2.6	13.2	34.2	50.0
자녀유무	있다	6.7	24.5	42.5	26.3	1.1	9.3	46.6	43.0
	없다	8.8	21.8	40.4	29.0	2.5	13.2	44.7	39.6

▷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6.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4%로 나타났고, 남성은 43.4%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76.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78.8%, 남성은 72.2%로 나타남.

〈표 IV-22〉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9.4	26.8	39.3	24.5	5.5	17.7	47.1	29.7
성별	여성	7.1	26.3	39.8	26.8	3.7	17.5	47.7	31.1
	남성	14.7	28.7	37.6	19.0	9.4	18.3	45.4	26.8
연령	20대 이하	12.0	24.5	33.8	29.6	7.9	16.4	44.4	31.3
	30대	10.4	23.4	45.8	20.4	6.8	21.3	47.5	24.4
	40대	8.5	27.4	38.9	25.3	3.3	16.0	47.7	33.0
	50대	8.0	27.6	36.8	27.6	6.3	14.5	48.4	30.9
	60대 이상	8.2	35.3	34.8	21.7	4.1	19.3	45.6	31.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9.6	28.0	40.4	22.0	5.8	18.4	45.7	30.2
	방배권	9.4	25.1	35.2	30.3	6.1	15.4	48.1	30.4
	서초권	9.5	28.6	40.8	21.1	6.4	19.1	46.3	28.2
	양재/내곡권	8.8	24.4	40.5	26.3	2.0	17.6	50.2	30.2
결혼여부	비혼	11.3	23.2	39.6	25.9	7.9	18.1	46.8	27.1
	기혼	8.6	28.5	39.4	23.6	4.2	17.3	47.6	30.9
	기타	7.9	31.6	36.8	23.7	8.1	21.6	43.2	27.0
자녀유무	있다	8.7	27.6	39.6	24.1	4.2	16.8	46.8	32.2
	없다	10.6	26.0	38.6	24.7	7.6	19.1	47.6	25.7

▷ 골목길 안심 CCTV

‘골목길 안심 CCTV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9.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0.3%로 나타났고, 남성은 43.4%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골목길 안심 CCTV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92.5%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92.7%, 남성은 92.2%로 나타남.

〈표 IV-23〉 골목길 안심 CCTV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2.2	17.5	53.2	27.1	0.6	6.9	45.7	46.8
성별	여성	2.2	18.1	52.5	27.1	0.6	6.7	45.7	47.0
	남성	2.3	15.8	54.5	27.4	0.7	7.1	45.3	46.9
연령	20대 이하	4.2	16.8	45.8	33.2	0.5	5.2	45.1	49.3
	30대	2.1	17.1	55.7	25.2	0.7	8.6	51.3	39.4
	40대	1.6	17.7	53.2	27.4	0.5	6.5	43.9	49.1
	50대	1.9	17.6	55.6	24.9	0.0	7.4	41.9	50.8
	60대 이상	2.1	18.7	52.4	26.7	0.0	5.0	43.0	50.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1	18.1	54.4	25.4	0.5	5.3	46.3	47.9
	방배권	2.0	15.6	53.3	29.1	0.8	7.3	42.2	49.7
	서초권	2.3	18.3	53.1	26.3	0.6	7.3	49.8	42.3
	양재/내곡권	2.4	17.5	50.0	30.1	0.5	7.3	40.8	51.5
결혼여부	비혼	2.8	16.2	53.1	27.8	0.6	7.9	48.9	42.6
	기혼	2.0	18.3	53.4	26.3	0.6	6.6	44.1	48.7
	기타	0.0	17.5	50.0	32.5	0.0	2.6	48.7	48.7
자녀유무	있다	1.8	17.9	53.6	26.8	0.6	6.7	42.9	49.8
	없다	3.0	17.1	52.5	27.4	0.7	7.3	49.8	42.2

▷ 구민 자전거 보험

‘구민 자전거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5.1%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54.2%로 나타났고, 남성은 57.4%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구민 자전거 보험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72.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74.0%, 남성은 70.0%로 나타남.

〈표 IV-24〉 구민 자전거 보험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20.7	34.4	28.6	16.4	6.0	21.1	48.0	24.9
성별	여성	18.9	35.3	28.4	17.4	5.0	20.9	49.0	25.0
	남성	25.2	32.2	28.8	13.8	8.5	21.4	44.9	25.1
연령	20대 이하	25.6	42.3	20.0	12.1	5.6	26.8	50.7	16.9
	30대	21.9	34.2	31.6	12.2	6.8	23.9	50.7	18.5
	40대	18.4	29.3	34.1	18.2	5.1	16.8	48.8	29.2
	50대	19.1	34.0	26.7	20.2	4.7	21.1	43.4	30.9
	60대 이상	19.9	37.6	21.5	21.0	7.8	17.4	42.5	32.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1.5	33.9	27.5	17.1	3.2	23.4	46.1	27.4
	방배권	21.1	34.4	28.7	15.7	7.6	20.9	46.6	24.9
	서초권	19.4	36.0	29.0	15.6	7.0	19.8	51.0	22.2
	양재/내곡권	21.4	30.6	29.1	18.9	6.0	20.0	47.0	27.0
결혼여부	비혼	25.1	38.5	25.7	10.7	7.8	24	51.6	16.6
	기혼	18.9	32.2	29.9	19	4.9	19.7	46.7	28.7
	기타	10.3	43.6	33.3	12.8	10.8	21.6	35.1	32.4
자녀유무	있다	18.5	32.9	29.1	19.5	4.9	19.5	45.9	29.8
	없다	24.1	37.0	27.9	11.0	7.8	23.9	51.1	17.2

▷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8.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7.0%로 나타났고, 남성은 33.3%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2.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4.0%, 남성은 78.0%로 나타남.

〈표 IV-25〉 버스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 인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6.5	22.3	43.1	28.1	3.3	14.5	45.9	36.3
성별	여성	5.3	21.7	42.9	30.1	2.7	13.3	46.6	37.4
	남성	9.5	23.8	43.9	22.9	4.8	17.2	44.4	33.6
연령	20대 이하	6.5	22.3	38.6	32.6	2.8	16.4	44.4	36.4
	30대	6.5	23.3	47.6	22.6	3.3	16.5	52.9	27.3
	40대	7.4	22.9	45.5	24.2	3.9	15.1	45.9	35.0
	50대	5.4	19.6	40.0	35.0	3.9	11.3	41.0	43.8
	60대 이상	5.9	22.2	36.8	35.1	1.7	10.3	37.7	50.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3	22.5	39.1	31.1	2.4	14.5	45.5	37.6
	방배권	6.9	22.2	42.6	28.3	3.0	13.5	45.7	37.8
	서초권	4.4	22.6	44.8	28.2	3.5	14.1	45.5	36.9
	양재/내곡권	9.2	21.7	46.4	22.7	5.4	17.6	46.8	30.2
결혼여부	비혼	6.5	22.7	45.3	25.5	3.7	15.7	50.8	29.8
	기혼	6.6	22.6	41.9	28.9	3.2	13.9	44.2	38.7
	기타	5.0	15.0	47.5	32.5	2.6	12.8	30.8	53.8
자녀유무	있다	6.3	22.7	41.5	29.5	3.0	13.6	43.8	39.6
	없다	6.7	22.0	45.7	25.6	3.8	15.9	49.3	31.0

▷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풀컵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풀컵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6.1%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3.9%로 나타났고, 남성은 21.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풀컵의 효과성’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7.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8.5%, 남성은 84.4%로 나타남.

〈표 IV-26〉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풀컵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4.0	12.1	35.6	48.3	3.2	9.5	33.9	53.4
성별	여성	3.2	10.7	33.8	52.3	2.7	8.8	31.4	57.1
	남성	6.1	15.4	39.8	38.7	4.6	11.0	39.9	44.5
연령	20대 이하	3.7	10.7	33.5	52.1	4.7	5.6	31.2	58.6
	30대	4.6	13.4	41.6	40.4	2.8	11.4	41.1	44.6
	40대	3.7	12.7	37.1	46.5	3.7	9.5	35.2	51.6
	50대	3.1	9.5	31.3	56.1	1.9	9.7	25.2	63.2
	60대 이상	5.5	12.0	26.8	55.7	2.8	9.4	29.3	58.6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6	10.6	36.3	49.5	2.9	9.1	35.7	52.3
	방배권	4.9	11.4	34.8	48.9	3.5	9.8	31.5	55.3
	서초권	3.2	16.0	35.9	44.8	2.3	11.7	32.9	53.2
	양재/내곡권	4.9	6.8	34.5	53.9	5.9	4.4	36.8	52.9
결혼여부	비혼	3.8	11.1	40.1	44.9	4.1	7.7	37.1	51.1
	기혼	4.0	12.4	33.6	49.9	2.6	10.6	32.8	54.0
	기타	5.0	17.5	30.0	47.5	7.7	7.7	23.1	61.5
자녀유무	있다	3.6	12.5	33.3	50.6	2.7	9.4	32.7	55.3
	없다	4.6	11.6	39.3	44.4	4.1	9.9	35.9	50.1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15.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13.9%로 나타났고, 남성은 18.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5.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6.4%, 남성은 83.2%로 나타남.

〈표 IV-27〉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3.4	11.9	41.9	42.8	2.3	12.2	43.1	42.3
성별	여성	3.1	10.8	40.6	45.5	1.8	11.9	42.9	43.5
	남성	4.1	14.4	44.8	36.7	3.7	13.1	43.4	39.8
연령	20대 이하	5.6	10.2	42.3	41.9	2.8	10.3	43.5	43.5
	30대	4.2	15.7	45.3	34.9	3.0	16.6	46.2	34.3
	40대	2.1	9.4	44.5	44.0	2.1	11.1	43.0	43.9
	50대	1.9	11.0	38.0	49.0	2.3	9.7	40.9	47.1
	60대 이상	3.7	12.3	33.2	50.8	0.6	10.9	38.3	50.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1	11.1	40.4	46.4	1.3	11.7	43.0	44.0
	방배권	3.2	12.5	38.7	45.6	3.8	11.1	44.2	40.9
	서초권	4.0	13.1	44.2	38.7	1.9	12.9	41.7	43.5
	양재/내곡권	4.4	9.2	44.7	41.7	2.5	13.7	44.6	39.2
결혼여부	비혼	4.5	12.1	43.5	39.9	3.1	12.8	45.0	39.1
	기혼	2.8	11.8	41.2	44.2	1.8	12.1	42.7	43.4
	기타	5.0	12.5	45	37.5	5.1	10.3	38.5	46.2
자녀유무	있다	2.9	11.0	40.9	45.1	1.8	11.4	41.5	45.3
	없다	4.1	13.4	43.8	38.7	3.1	13.7	46.0	37.2

▷ 수해복구·예방대책

‘수해복구·예방대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24.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24.5%로 나타났고, 남성은 26.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수해복구·예방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9.7%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90.8%, 남성은 87.2%로 나타남.

〈표 IV-28〉 수해복구·예방대책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4.6	20.2	41.7	33.5	1.7	8.7	45.1	44.6
성별	여성	4.1	20.4	40.6	34.9	1.4	7.8	43.8	47.0
	남성	5.9	20.3	44.4	29.5	2.3	10.6	48.3	38.9
연령	20대 이하	2.8	23.3	36.3	37.7	1.9	7.5	43.0	47.7
	30대	3.7	19.2	47.8	29.3	1.4	9.1	50.2	39.3
	40대	5.1	20.3	44.6	30.0	0.9	8.8	47.0	43.3
	50대	5.0	20.2	37.0	37.8	2.3	8.9	40.9	47.9
	60대 이상	7.0	19.8	33.7	39.6	2.9	8.6	36.6	52.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3.6	18.7	41.8	35.8	0.3	6.0	48.2	45.6
	방배권	6.4	21.6	37.6	34.4	3.3	9.4	45.1	42.3
	서초권	4.2	19.2	44.9	31.7	1.9	8.9	42.3	46.9
	양재/내곡권	3.4	22.2	43.0	31.4	0.5	12.2	45.4	42.0
결혼여부	비혼	3.6	19	44.9	32.4	1.4	7.3	49.3	42
	기혼	5.1	21.3	39.9	33.6	1.8	9.5	43.5	45.1
	기타	0.0	12.5	50.0	37.5	0.0	5.1	38.5	56.4
자녀유무	있다	4.9	21.2	39.6	34.3	1.8	9.4	42.1	46.7
	없다	4.1	19.2	45.1	31.6	1.5	7.8	49.7	41.1

▷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번캔버스

‘어번캔버스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46.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46.1%로 나타났고, 남성은 47.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어번캔버스의 효과성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5.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86.3%, 남성은 84.5%로 나타남.

〈표 IV-29〉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번캔버스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8.7	37.5	37.4	16.5	2.2	11.9	49.6	36.3
성별	여성	7.3	38.8	37.6	16.4	1.7	11.9	49.2	37.1
	남성	12.2	34.8	36.0	17.0	3.5	12.0	50.2	34.3
연령	20대 이하	12.1	41.4	32.6	14.0	3.8	12.2	50.2	33.8
	30대	8.1	33.9	41.6	16.4	1.6	10.5	54.6	33.3
	40대	7.1	37.8	37.6	17.5	2.3	11.0	49.5	37.1
	50대	9.6	37.7	35.0	17.7	2.0	15.0	45.7	37.4
	60대 이상	8.6	40.1	35.3	16.0	1.7	13.1	42.3	42.9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7.0	35.2	40.9	16.8	1.0	11.0	48.8	39.1
	방배권	12.0	41.3	31.4	15.2	3.3	13.0	48.5	35.2
	서초권	6.5	37.2	39.3	17.0	2.1	11.4	51.6	34.9
	양재/내곡권	10.6	35.7	37.7	15.9	2.5	11.8	49.0	36.8
결혼여부	비혼	10.7	35.6	38.1	15.6	3.1	12.0	51.2	33.7
	기혼	8.0	38.8	36.5	16.8	1.9	12.1	48.7	37.3
	기타	2.5	30.0	55.0	12.5	0.0	7.7	51.3	41.0
자녀유무	있다	8.2	37.7	37.0	17.1	1.9	11.8	48.0	38.3
	없다	9.5	37.4	38.4	14.8	2.6	12.1	52.2	33.1

▷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부정적(‘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4.4%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52.2%로 나타났고, 남성은 60.3%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의 효과성의 효과성’에 대해 묻은 결과 긍정적(‘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66.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69.4%, 남성은 61.2%로 나타남.

〈표 IV-30〉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_인지여부 및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특성	인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	13.4	41.0	32.1	13.5	7.2	25.9	47.9	19.0
성별	여성	10.9	41.3	33.5	14.3	5.6	24.9	47.7	21.7
	남성	19.4	40.9	28.2	11.5	11.1	27.7	48.5	12.7
연령	20대 이하	17.6	41.7	30.6	10.2	11.2	29.8	43.7	15.3
	30대	10.9	37.4	37.9	13.9	7.9	27.6	48.6	15.9
	40대	14.5	41.2	30.0	14.3	6.1	23.4	48.8	21.7
	50대	14.2	43.7	28.0	14.2	5.8	23.3	47.9	23.0
	60대 이상	11.2	44.4	29.9	14.4	5.7	27.0	47.7	19.5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5.8	40.9	29.8	13.5	6.5	23.6	50.5	19.4
	방배권	14.3	41.9	29.8	14.0	8.4	25.7	48.3	17.6
	서초권	9.3	39.3	36.6	14.8	6.0	27.0	46.6	20.4
	양재/내곡권	17.4	43.5	29.0	10.1	9.8	27.0	46.1	17.2
결혼여부	비혼	14.5	41.8	33.5	10.1	10.6	28.6	47.3	13.5
	기혼	13.3	40.3	31.4	15.0	5.5	24.5	48.5	21.5
	기타	5.0	45.0	37.5	12.5	7.9	23.7	47.4	21.1
자녀유무	있다	13.0	41.0	31.0	15.0	4.9	24.6	48.6	21.8
	없다	14.1	41.2	33.7	11.0	10.8	27.6	47.4	14.2

3)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긍정적(‘약간 만족 +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34.8%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35.2%로 나타났고, 남성은 3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재/내곡권이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31〉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매우만족’ 합계	계
전체		19.7	45.5	26.1	8.7	34.8	1,535
성별	여성	17.9	46.9	25.9	9.3	35.2	1,082
	남성	24.4	42.8	25.6	7.2	32.8	442
연령	20대 이하	26.4	45.4	20.4	7.9	28.3	216
	30대	17.8	41.8	32.6	7.9	40.5	433
	40대	20.6	46.5	24.3	8.6	32.9	432
	50대	19.9	46.0	23.8	10.3	34.1	261
	60대 이상	15.0	51.3	24.1	9.6	33.7	187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20.7	46.1	23.6	9.6	33.2	386
	방배권	20.7	46.6	23.9	8.9	32.8	406
	서초권	16.3	44.8	30.6	8.3	38.9	527
	양재/내곡권	24.9	44.4	23.9	6.8	30.7	205
결혼여부	비혼	22.4	45.1	24.6	7.9	32.5	495
	기혼	19.0	45.9	26.2	9.0	35.2	992
	기타	10.0	42.5	37.5	10.0	47.5	40
자녀유무	있다	19.4	45.1	26.3	9.2	35.5	913
	없다	20.5	46.3	25.4	7.9	33.3	611

▷ 주거환경 개선

‘우리 동네가 이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이 든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8.6%로 나타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90.1%로 나타났고, 남성은 85.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반포/잠원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배권이 8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32〉 우리 동네가 이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이 든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0.8	10.6	65.5	23.1	88.6	1,543
성별	여성	0.7	9.2	66.1	24.0	90.1	1,084
	남성	0.9	13.9	64.2	21.0	85.2	447
연령	20대 이하	1.4	9.3	67.6	21.8	89.4	216
	30대	0.9	14.3	64.4	20.3	84.7	433
	40대	0.2	8.8	68.2	22.8	91.0	434
	50대	1.1	10.6	64.6	23.6	88.2	263
	60대 이상	0.5	8.4	59.5	31.6	91.1	19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8	8.5	62.6	28.1	90.7	388
	방배권	0.2	12.4	65.1	22.2	87.3	410
	서초권	0.9	11.4	65.8	21.8	87.6	527
	양재/내곡권	1.0	9.2	71.5	18.4	89.9	207
결혼여부	비혼	1.0	13.5	64.6	20.8	85.4	495
	기혼	0.7	9.2	66.2	23.9	90.1	1000
	기타	0.0	5.0	62.5	32.5	95.0	40
자녀유무	있다	0.8	9.0	64.8	25.4	90.2	921
	없다	0.8	12.6	66.8	19.8	86.6	611

▷ 정주의식 변화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87.5%로 나타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88.9%로 나타났고, 남성은 84.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반포/잠원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3〉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0.8	11.7	52.1	35.4	87.5	1,546
성별	여성	0.6	10.6	51.7	37.2	88.9	1,086
	남성	1.3	14.3	53.1	31.3	84.4	448
연령	20대 이하	1.9	14.8	47.2	36.1	83.3	216
	30대	0.5	15.0	57.3	27.3	84.6	433
	40대	0.9	8.5	56.8	33.8	90.6	435
	50대	0.4	10.6	47.0	42.0	89.0	264
	60대 이상	0.5	9.9	40.8	48.7	89.5	191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0.8	10.0	48.1	41.1	89.2	389
	방배권	0.5	11.7	51.0	36.8	87.8	410
	서초권	0.9	12.5	53.1	33.5	86.6	529
	양재/내곡권	1.0	12.1	60.4	26.6	87.0	207
결혼여부	비혼	1.2	16.2	51.7	30.9	82.6	495
	기혼	0.6	9.4	52.3	37.7	90.0	1001
	기타	0.0	9.8	53.7	36.6	90.3	41
자녀유무	있다	0.6	9.2	51.0	39.2	90.2	924
	없다	1.0	15.2	53.8	30.0	83.8	611

▷ 주인의식 변화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76.2%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79.2%로 나타났고, 남성은 6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성별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양재/내곡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71.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V-34〉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1.7	22.2	50.4	25.8	76.2	1,541
성별	여성	1.1	19.8	51.8	27.4	79.2	1,082
	남성	2.9	28.4	46.5	22.1	68.6	447
연령	20대 이하	4.2	33.8	41.2	20.8	62.0	216
	30대	1.4	22.9	54.5	21.2	75.7	433
	40대	0.9	18.8	54.6	25.7	80.3	432
	50대	2.3	22.1	45.6	30.0	75.6	263
	60대 이상	0.5	15.3	48.4	35.8	84.2	190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8	20.2	47.5	30.5	78.0	387
	방배권	0.7	23.9	49.5	25.9	75.4	410
	서초권	1.9	20.7	52.1	25.3	77.4	526
	양재/내곡권	2.9	26.1	53.6	17.4	71.0	207
결혼여부	비혼	3.2	29.7	47.3	19.8	67.1	495
	기혼	1.0	18.3	52.1	28.6	80.7	996
	기타	0.0	29.3	43.9	26.8	70.7	41
자녀유무	있다	1.1	17.9	51.4	29.6	81.0	918
	없다	2.6	28.9	48.5	19.9	68.4	612

▷ 안전사업 참여 의향

‘나는 동네 안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4.3%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54.0%로 나타났고, 남성은 5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 관련한 시민 참여 의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35〉 나는 동네 안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9.3	36.4	38.6	15.7	54.3	1,547
성별	여성	8.3	37.7	37.6	16.4	54.0	1087
	남성	12.1	33.3	40.6	14.1	54.7	448
연령	20대 이하	16.7	39.8	31.9	11.6	43.5	216
	30대	9.9	36.7	40.0	13.4	53.4	433
	40대	7.1	36.6	41.8	14.5	56.3	435
	50대	7.2	33.3	41.7	17.8	59.5	264
	60대 이상	7.8	34.7	31.6	25.9	57.5	19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8.2	37.3	38.8	15.7	54.5	389
	방배권	12.9	36.7	35.8	14.6	50.4	411
	서초권	6.6	36.5	39.5	17.4	56.9	529
	양재/내곡권	10.6	33.8	41.5	14.0	55.5	207
결혼여부	비혼	13.5	39.4	36.4	10.7	47.1	495
	기혼	7.4	35.6	39.2	17.8	57.0	1002
	기타	7.3	22.0	48.8	22.0	70.8	41
자녀유무	있다	7.1	34.2	40.0	18.7	58.7	925
	없다	12.4	40.1	36.3	11.1	47.4	611

▷ 구정활동 참여 의향

‘나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 긍정적(‘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51.0%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50.5%로 나타났고, 남성은 52.0%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지역별로는 서초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정과 관련한 시민 참여 의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나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계
전체		11.1	37.9	36.0	15.0	51.0	1,548
성별	여성	10.4	39.2	35.3	15.2	50.5	1,088
	남성	13.2	34.8	37.5	14.5	52.0	448
연령	20대 이하	21.3	40.7	29.6	8.3	37.9	216
	30대	12.0	37.0	36.0	15.0	51.0	433
	40대	8.7	40.5	35.9	14.9	50.8	435
	50대	6.8	35.6	42.8	14.8	57.6	264
	60대 이상	8.8	34.2	34.2	22.8	57.0	193
거주지역	반포/잠원권	11.6	36.8	36.0	15.7	51.7	389
	방배권	13.1	40.3	32.5	14.1	46.6	412
	서초권	8.1	37.6	37.6	16.6	54.2	529
	양재/내곡권	14.0	34.8	39.1	12.1	51.2	207
결혼여부	비혼	17.0	40.6	31.5	10.9	42.4	495
	기혼	8.4	37.1	37.7	16.8	54.5	1003
	기타	9.8	31.7	39.0	19.5	58.5	41
자녀유무	있다	7.9	37.0	37.7	17.4	55.1	925
	없다	15.8	39.9	32.8	11.4	44.2	612

3

분석 요약

1) 주거환경 인식

- 거주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반포/잠원, 방배, 서초권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도로와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도로’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도로 구분과 관리, 시설물 등에서는 문항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 간 3%p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 집 주변 주차에서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시설관리’ 관련 만족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공원과 녹지, 자전거 등 관리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수해 예방과 복구에서는 남성, 제설작업에서는 여성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공원과 녹지, 수해예방과 복구, 제설작업 등에서는 문항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전거 등 관리에서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_안전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골목길, CCTV, 등하굣길 등에서는 문항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골목길 흡연, 반려동물 보호구, 유흥시설 등의 순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골목길 흡연에서 성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2) 주거생활안전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초권의 인지도(전체 5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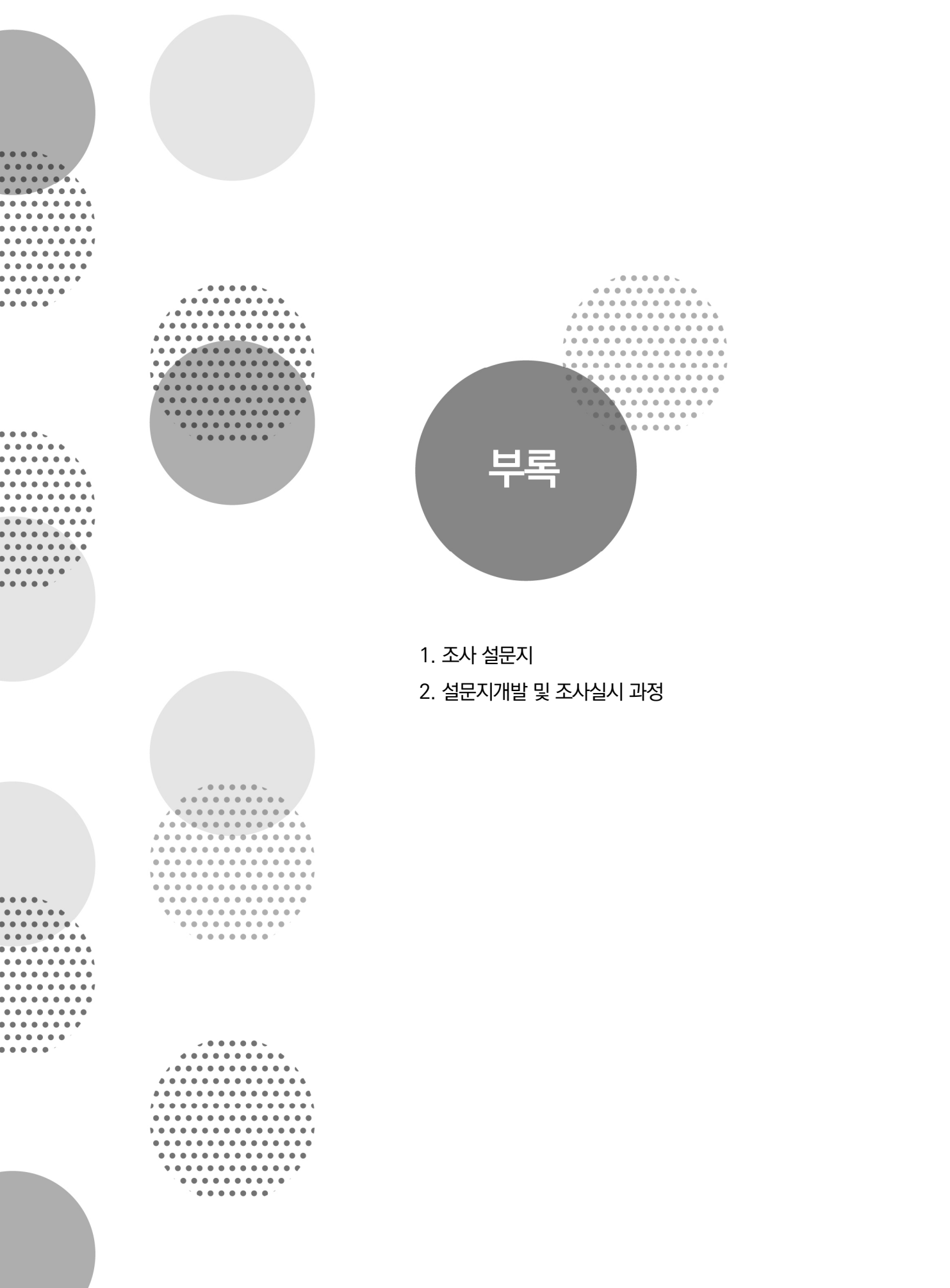
-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서초형 안심보행길,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에 대한 인지도_개별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전거 보험, CPTED, 어번캔버스, 안심보행길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초구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의 효과성_개별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생활안전 사업 만족도 및 인식변화

- 거주 동네의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반포/잠원, 양재/내곡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방배, 서초권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서초권의 만족도(전체 38.9%)가 가장 높게 나타남. 서초권과 양재/내곡권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주거환경과 정주, 주인의식'의 긍정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포/잠원권의 긍정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IV-32, 33, 34>
-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안전사업, 구정활동 참여'의 긍정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초권의 긍정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IV-35, 36>

참고문헌

- 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청. 2010년,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2018년, 2019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6. 「인구총조사(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성인지통계」.
행정안전부. 2010. 2020.8. 「주민등록인구현황」.
여성가족부. 2018.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알기쉬운 성인지통계』
서초구청 웹사이트. <https://www.seocho.go.kr/site/secho/main.do#>
서울시. 2020.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10763/S/2/datasetView.do>
서초구. 2020. 「2019 서초구 사회조사 보고서」



부록

1. 조사 설문지
2. 설문지개발 및 조사실시 과정

1. 조사 설문지

ID		-				
----	--	---	--	--	--	--

여성친화도시 서초!

서초구 가족·안전분야 성인지통계 작성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양성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이래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성인지 통계(가족분야, 안전분야)를 만들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20대 ④ 50대	② 30대 ⑤ 60대 이상 ③ 40대 (→ 19세 미만 응답자는 조사중단)
거주 또는 근무지역	① 반포/잠원권	② 방배권 ③ 서초권 ④ 양재/내곡권
거주 기간	① 서초구 지역에서 ()년 거주 ② 서초구 내 근로자로 해당없음	(→ 1년 미만 거주자는 조사중단)
경제활동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결혼 여부	① 비혼	② 기혼 ③ 기타
자녀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이 설문에서 취합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 성인지통계는? 성별이 분리된 통계로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하여 불평등 요소를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02-522-0292)

가족분야

1. 다음은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 질문은 관련 상황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에 초점을 맞추어 V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2) 자산의 명의로는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4)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5)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이나 계절별 의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6) 남성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아이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엄마의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8) 딸의 귀가 시간은 아들에 비해 빨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9) 평소 자녀에게 가정 내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1) 남성의 육아휴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2)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이 살림을 전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은 오히려 집안일로 바쁘다.	①	②	③	④
14) 지역활동, 자원활동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15)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가족시간 활용과 현황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V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과 가사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2.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 ① 혈연 ② 거주공간 ③ 경제공동체 ④ 심리적 유대감 ⑤ 법적인 인정

2-3. 본인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1개만 선택)

- ① 일을 우선시한다 ②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③ 둘 다 비슷하다
④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구 분	평 일	주 말
1) 가정관리*	___시간	___시간
2) 가족 돌보기**	___시간	___시간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만10세 미만 아이돌보기, 만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등

① 있다 ② 없다

① 자녀학업 및 육아부담 ② 식사준비와 가사부담
③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관계의 어색함
⑤ 협소한 공간의 불편함 ⑥ 고립감과 우울감
⑦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⑧ 특별한 변화가 없다

① 긴급돌봄서비스 ②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확대
③ 아동급식카드 이용대상 및 활용처 확대 ④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취업 및 지원정보 제공
⑤ 가족상담 및 관계회복서비스 확대 ⑥ 가족구성원이 일(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지원
⑦ 기타()

- 서초구민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서초 아이맘 행복콜센터'(02-2155-6000) 운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매월 30만원)
- '서초프렌다다' 운영(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운영)
-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키움센터' 운영
- 시간제 보육서비스, 서초형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산모돌보미 사업

- ① 가족돌봄 사업 확대 ② 가족 소통·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③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사업 발굴 및 확산 ④ 아빠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
⑤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⑥ 양성평등 교육 대상자 확대
⑦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⑧ 기타 ()

2. 다음은 서초구의 주거생활안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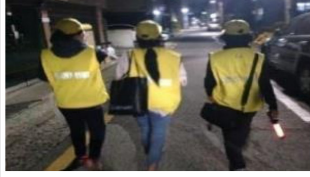
2-1. 서초구에서 주거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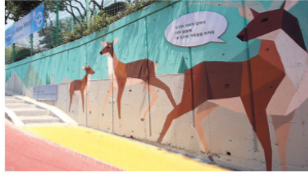
- 보·차도 분리하는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
- 바닥신호등·보행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 사고가 잦은 비신호 횡단보도 양 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 보행자와 운전자 움직임을 감지하여 서로에게 알려주는 스마트모션센서 도입
- 지역 내 후미지고 으스스한 곳을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 도시 갤러리로 개선하는 ‘서초 어번캔버스’
- 서초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여성 1인 가구 맞춤형 안심 서비스’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2. 다음은 서초구에서 주거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에 대해 (1) 알고 계시는지와 (2) 사업내용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인지 여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서초형 안심보행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활주로형 횡단보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LED 바닥신호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항		인 지 여 부				효 과 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5) 골목길 안심 CCT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구민 자전거 보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버스정류장 스마트 예코쉘터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플컵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수해복구·예방대책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일상 속 예술공간 서초 어반캔버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항		인지 여부				효과성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2) 셉테드(CPTED) 도시안전 디자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3-1. 개선사업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십시오.

2-4. 주거생활안전 개선사업 이후 동네나 구정 참여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에 V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가 이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이전에 비해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동네 안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예. 자율방범대원, 안전모니터링 등)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공청회 등)	①	②	③	④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 설문지개발 및 조사실시 과정



연구보고 2021-2

서초구 성인지통계

발행일 : 2021년 8월

발행인 : 박현경

발행처 :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http://seochoequality.org>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38

전 화 : 02-522-0292(代)

인 쇄 : 경성문화사(02-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